

I&S

INTEGRATION & SOLUTION

아이앤에스는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른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대표변호사 조영길

고객의 문제는 각기 다릅니다.
그러나 아이앤에스(I&S)의 원칙은 모두 같습니다.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른길에 대한 믿음.
보편적이며 타당한 원칙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정의를 해결하는 것.
아이앤에스(I&S)의 구성원들은 고객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앤에스(I&S)의 구성원들은
수많은 현장 실무 경험을 통해 학습하고 성장한
정의에 대한 믿음으로 노사관계 개선의 바른길을 발견하여
의뢰인들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상대적 당파성의 원칙에서 보편적 타당성의 원칙으로’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노사관계개선연구소

Telephone 02 2183 2700 www.ins-lab.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34 한신인터밸리24 동관19층

사이버 공간과 신독(慎獨)

손봉호 (대표주관)

인터넷이 처음으로 보급되었을 때 우리는 앞으로 의사소통이 원활해지고 건전한 여론이 형성될 것이라 낙관했다. 가끔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의견이 사이버공간에 제시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수정하고 비판할 것이므로 가장 정확하고 공정한 의견이 다수의 인정을 받아 정착될 것이라고 기대한 것이다. 위키피디아가 상당한 인기와 신임을 받는 것을 보면 그 논리가 옳은 것같이 보인다. 그러나 위키피디아는 주로 학술적인 이론과 사실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여론 형성의 전형이 될 수 없다. 인터넷이 일반화되고 온갖 의견들이 우후죽순처럼 사이버공간에 올라오자 처음의 기대는 대부분 무너졌다. 인터넷 여론은 방송과 신문보다 더 불신을 받게 되어 건전한 여론은 기대했던 만큼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우리의 댓글 문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편향된 생각들과 정제되지 않은 감정이 거침없이 노출되고 심지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까지 그대로 올라온다. 편견을 양산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여 심지어 사람들을 자살에 이르게 까지 한다. 다른 어느 나라의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나라의 댓글같이 저급하고 감정적인 말들이 거침없이 게시된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심지어 기독교 온라인 공간에도 그런 댓글이 없지 않고 그런 것에 대해서 다른 이용자들도 별로 놀라지 않고 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만큼 너무 흔하기 때문일 것이다. 믿을 수 없는 정보, 감정만 상하게 하는 댓글은 사이버 공간에 제시되는 모든 정보의 권위를 추락시킬 것이고 인터넷 여론은 조만간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한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간단한 질문을 하나 해보면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다. 즉 심한 욕설과 야비한 내용의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자신을 잘 아는 사람들이 모인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그런 말을 하겠는가 하고 물어 보는 것이다. 물론 그렇게 할 사람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아는 사람들 앞에서는 악플 내용을 그대로 내뱉지는 않을 것이다. 사이버 공간의 여론이 무책임하고 저질인 것은 그것들이 대부분 사적인 공간에서 익명으로 제시되기 때문이다. 비록 자기 이름을 밝힌다 하더라도 유명인이 아니고 자신을 아는 사람이 그 글을 읽을 확률이 낮으면 익명이나 다름없다.

모든 사회, 특히 한국 사회에는 체면, 위신, 눈치 같은 것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데 불가결하다. 비록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요소가 없지 않지만 체면이나 위신 같은 것을 완

전히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전혀 살피지 않은 채 사람들이 모두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한다면 사회는 난장판이 되고 말 것이다. 우리나라 사이버 공간이 이 모양이 된 것은 거기서는 다른 사람의 눈치나 체면 같은 것을 무시해도 되기 때문일 것이다.

한 사람의 인격수양이 어느 정도인가는 그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할 수 있다. 혼자 있을 때의 생각과 행동이 그 사람의 가장 정직하고 솔직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동양 전통에는 홀로 있을 때 삼가야 한다는 의미의 “신독(慎獨)”이란 것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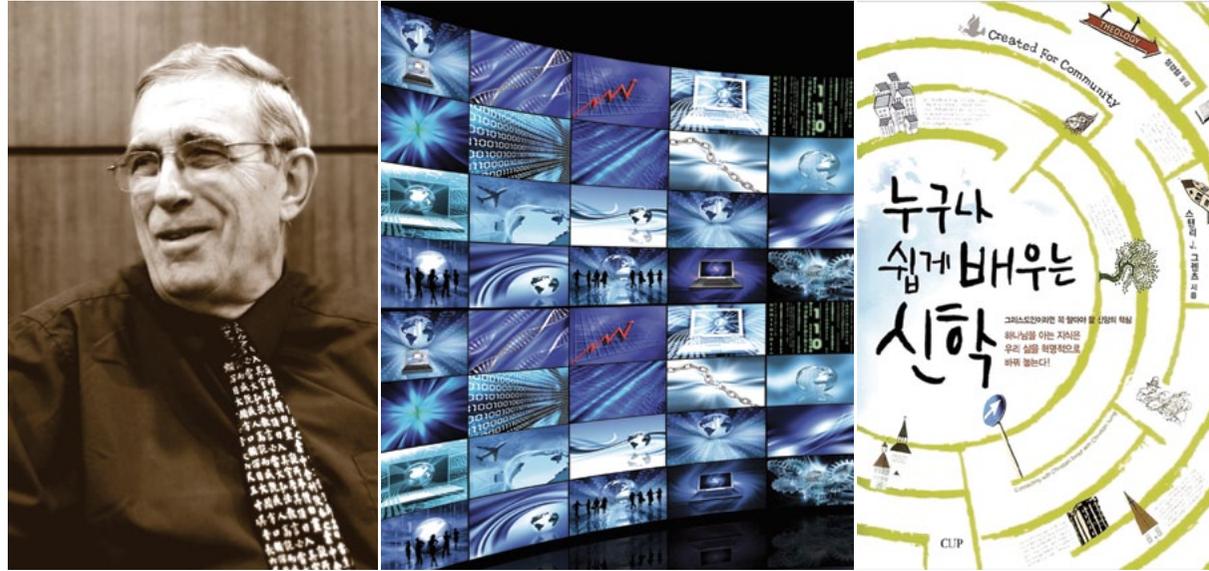
손봉호 본지 대표주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대학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이며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로 섬기고 있다.

“홀로 서 있어도 자기 그림자에게 부끄러움이 없고, 홀로 잘 때에도 자기 이불에게 부끄러움이 없다”(獨立不慙影 獨寢不愧衾)는 말에 잘 표현되어 있다. 그런데 과연 진정한 신독이 가능할까? 그것은 우리가 추구할 이상일 뿐 피와 살을 가진 보통 인간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한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이 진정한 신독을 어렵게 만든다.

우리가 법률의 제재가 없이도 어느 정도 정직하고 공정하게 행동하며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른 인격체의 끊임없는 감시와 견제를 받기 때문이다. 사적인 공간에서 혼자서라도 올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한다면 이 또한 다른 인격체들의 감시와 견제를 상상하고 전제하기 때문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홀로 있을 때도 하나님 면전에(Coram Deo) 서 있다. 그들에게는 엄격한 의미에서 사적인 공간이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주위에 다른 사람이 없고 체면이나 위신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도 악한 생각을 하고 못된 행동을 할 수 없다.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이버 공간이라도 무책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없고 저질의 댓글을 올릴 수 없다.

한국의 사이버 공간이 건전하지 못하게 된 것은 한국 문화의 무신론적 세계관과 무관하지 않다. 마음속의 경찰(police within)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물리적으로 혼자 있으면 사적 공간이 철저하게 보장된다. 거기서 진정한 신독이 이뤄지기가 어렵고 무책임한 의견을 공적 공간에 제시하기가 쉽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사이버 공간을 지혜롭게 이용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표지인물
대로우 밀러

〈월드뷰〉는 우리 사회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확산되기를 소망하며 기독교학문연구에 뿌리를 두고 발행하는 기독교세계관 전문잡지입니다. 일상 속 깊이 기독교세계관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이들에게 기독교세계관을 소개하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후원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COVER STORY

- 08 기독교세계관 좌담 세계관, 부르심과 삶이 하나가 되는 길 _대로우 밀러, 김의원
- 16 대로우 밀러의 서적 소개 _편집부

SPECIAL

- 18 디지털 혁명과 시간, 몸 _양성만
- 22 그리스도인은 사이버 스페이스를 어떻게 이용해야 할 것인가? _이승구
- 26 누가 나의 마음을 만지는가?: 사이버 세상의 진화, 빅 데이터 _손화철
- 30 개인정보의 정치학 _성기진

COLUMN

- 02 대표주간 사이버 공간과 신독(慎獨) _손봉호
- 36 주일학교 교사 멘토링 주일학교 교사 니고데모씨, 멘토 신국원에게 묻다! _신국원
- 40 HOW.TO. 주일학교 다음세대를 위한 기독교세계관 교육,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_유경상
- 45 세상을 바꾸는 주일학교 필독서 스탠리 그린츠의 『누구나 쉽게 배우는 신학』을 읽고 _윤성현

CULTURE

- 65 가로세로
- 66 유머 _손봉호

BOOK REVIEW

- 52 서평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창세기에서 배웠다』 _안영혁
- 56 서평 인생의 본질이며 모든 문제의 근원적 해결인 『하나님을 기뻐함』 _이승구
『하나님을 탐닉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NEWS

- 06 2013년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장 인사말 2013년, 다함께 일하는 해 _조성표
- 64 사무국 뉴스



좌측의 QR코드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는 네이버 블로그 <http://cworldview.blog.me>에서 가능합니다.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삶과 학문의 전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확인될 수 있도록 제 분야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을 정립하고 이를 확산시키며 이와 병행하여 실천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신앙과 학문의 공동체입니다.

대표주간 손봉호
발행인 김승욱
편집인 신효영
편집위원 김정호, 권태경, 백승현, 송태현, 양성만, 양혜원, 장수영, 전오선, 정정호, 조영길, 최현일, 황의서
자문위원 김승욱, 신국원, 이상정, 조성표, 최현일
교정/교열 김선경
디자인 황정희, 강새날
제작 주식회사 세상바로보기
인쇄 완산정판사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전화 02-754-8004
팩스 0303-0272-4967
주소 서울시 용산구 이촌2동 212-4
한강르네상스빌 A동 402호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페이스북 [facebook.com/cworldview](https://www.facebook.com/cworldview)
블로그 <http://cworldview.blog.me>
모바일매거진 m.worldview.or.kr

2013년, 다함께 일하는 해

◎ 조성표 (경북대 교수, 실행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총회에서 실행위원장으로 선임된 조성표입니다. 제가 실행위원장으로 나서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김승욱 교수께서 동역회의 아이콘으로 많은 시간과 열정을 들여 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기독교학문연구회와 통합 후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실행위원장으로 수고하신 김승욱 교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길 기원합니다.

저를 보시며 불안을 느끼셨다면, 그분은 우리 동역회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불안은 때로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동역회가 걱정되니 내가 나서서 도와야겠다는 진정한 동역자의식이 발동된다면 동역회는 크게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1990년 양승훈 교수님께서 공부하러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시면서 제가 당시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의 실행위원장에 해당하는 기획담당을 맡았습니다. 동역자 수련회가 진행 중이던 당시 포항공항에서 교수님을 배웅하고 돌아오면서 참으로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이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역자들도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소극적이던 회원들이 학회, 출판사, 교육, 운동, 각 분야에서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각 분야에서 헌신하는 자들이 일어나자, 하나님께서 동역회를 크게 부흥시키셨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이러한 헌신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구에 있으니 특히 서울 지역에서 많은 헌신자들이 나올 것을 기대합니다.

저는 동역회를 본부 단위-연구 본부(학회와 연구소), 운동본부, 교육본부, 사무국 등-로 운영하여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각각의 본부가 본부장의 지휘 하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특히 CUP나 VIEW와 마찬가지로 월간지 월드뷰도 (주)세상바로보기를 설립하여 독자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실행위원장으로서는 각 본부와 위원회에 부탁드립니다. 올해 한 가지씩은 우리 동역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뚜렷한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 부문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전체적으로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께도 변함없는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월간지에 글을 기고해 주시거나 총회나 집회에 참석해 주시는 등 적극적으로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의 슬로건은 「다함께 일하는 해」입니다. 작든지 크든지 회원 전체가 동역회의 사역에 동참하는 한 해이길 기대해 봅니다.



조성표 현재 경북대 경영학부 교수이며, 본 동역회 실행위원장이자 대구 성덕교회 장로이다. 전공은 재무회계 및 연구개발회계로 그리스도인의 재정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관련된 역서 및 저서로는 「돈걱정 없는 가정」(CUP), 「하나님이 가르쳐준 행복한 가정생활」(이상규, 정동섭, 양은순 공저: CUP), 「하나님 돈을 어떻게 쓸까요?」(박정운 공역: CUP), 「아직도 계속되는 꿈」(6인 공저: CUP), 「완전한 성공」, 「11인 공역: CUP」, 「공학회계」(명경사), 「비영리단체/비정부기구의 전략경영과 자금개발」(예영커뮤니케이션), 「일수록 행복해지는 돈의 비밀」(CUP), 「IFRS 중급회계」(경문사), 「한국사회의 발전과 기독교」(10인 공저: 예영커뮤니케이션) 등이 있다.

우리 동역회는 통합이후 3년 가까이 세계관 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세계관이란 단어조차 생소했는데, 이제는 대부분의 교회나 그리스도인 모임에서 성경적 세계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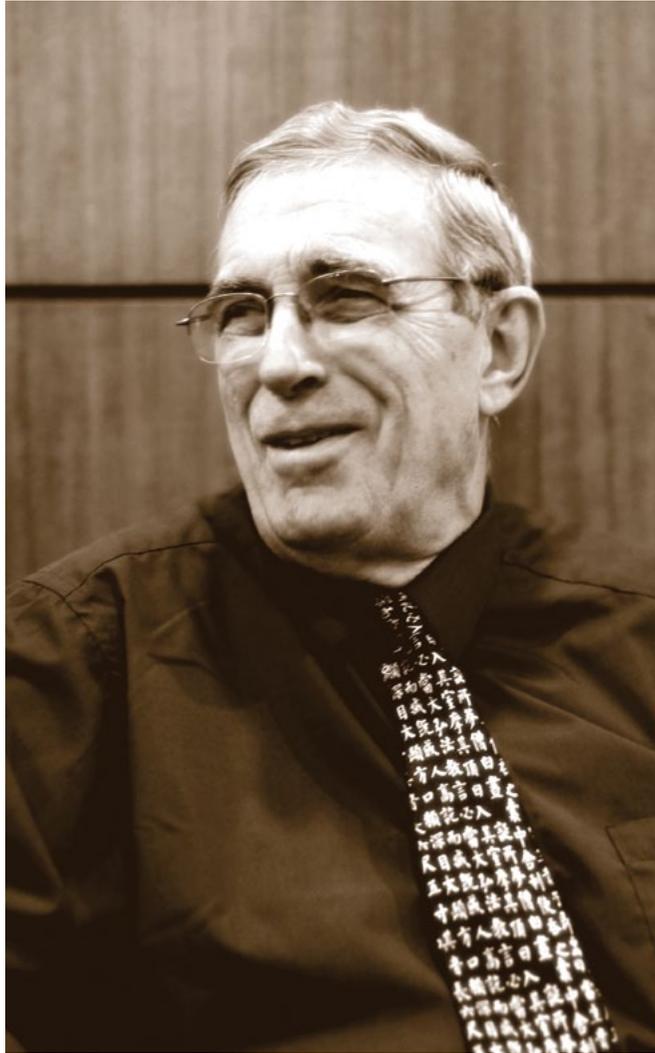
상황은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와 기독교 단체에서 세계관을 이야기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역에도 새로운 전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구, 운동, 교육의 세 축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서도, 우리의 역량에 적합한 사역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 동역회가 감당할 사역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 초기에 이사로 헌신해 주신 김준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자네들이 우리나라의 소망이야.” 우리들은 참으로 민망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서양은 배운 사람일수록, 젊은 사람일수록 교회를 떠나는데, 우리나라는 자네들과 같이 젊은 학자들이 하나님 일에 이렇게 열심이니 이것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소망이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는 그 의미를 잘 알 수 없었지만, 그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어 온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우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새로운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동역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역자 여러분의 가정과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주 안에서 동역자 된 조성표 드림



세계관, 부르심과 삶이 하나가 되는 길

국제 DNA(The Disciple Nations Alliance)의 공동설립자인 대로우 밀러(Darrow Miller)와 밥 모피트(Bob Moffitt) 박사가 한국 DNA 협의회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본보 김승욱 발행인의 사회로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김의원(백석대 부총장) 부이사장과 대로우 밀러의 좌담회가 있었다. 그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한다.

☎ 사회: 김승욱(중앙대 교수, 발행인)

Question 오늘 두 분을 함께 모시게 되어 기쁩니다. 먼저 대로우 밀러 박사님, 현재 하고 계시는 사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Answer 밀러 저는 박사가 아닙니다. 그냥 대로우 밀러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밥 모피트(Bob Moffitt)와 함께 DNA를 설립했습니다. DNA는 Disciple Nations Alliance의 약자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마 28:19)고 하신 명령을 실천하는 단체입니다. 저는 DNA를 주님이 말씀하셨던 누룩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누룩처럼 열방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기 전에는 국제기아대책기구(Food for the Hungry)에서 27년을 봉사했습니다.

Question DNA에서는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합니까?

Answer 밀러 이는 적절한 질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DNA에 프로젝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을 삶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세계관 운동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대학에 계시는 분들은 세계관을 추상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접근 방법은 다릅니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적용하는 것은 추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기아문제는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즉 기아 문제와 세계관의 연결고리를 찾아서 잘못된 세계관을 버리고 올바른 세계관을 갖도록 합니다.

Answer 김의원 저도 그 의견에 동감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도 기독교적 세계관을 교수들끼리 학문적 영역에서 추구하다 보니 지나치게 추상화되어 일반 목회자들과 신자들이 접근하기 어렵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Question 종전에 가난의 원인이 세계관과 관련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세계의 기아문제와 세계관이 어떻게 관련되는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Answer 밀러 많은 사람들이 나라가 가난한 것이 자원이나 자본 또는 기술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개발도상국 대부분은 정령숭배(애니미즘)에 빠져 있습니다. 애니미즘의 전통 신념은 영이 자연을 움직인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면 운명론자가 되거나 악한 영이 조종하는 대로 움직일 뿐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서 도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가난을 속명으로 받아들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서구 기술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티의 경우 대지진이 발생하기 전은 물론 이후에도 해외 원조가 매년 20-30억 달러(2-3조원)에 이르고 있는데도 여전히 가난합니다. 인구의 80%가 카톨릭이고, 나머지 20%는 개신교입니다. 즉 100%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 사람들 100%가 부두술사를 믿습니다. 아프리카의 정령숭배가 아이티로 전해진 것인데, 이들은 강력한 정령술사들을 믿습니다. 모든 아이티인들은 정령숭배자들로, 모든 교회가 영향 받고 있으며 기독교가 이러한 전통신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중생해도 정령숭배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지성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Question 그런 점에서는 한국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김의원 부총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Answer 김의원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불교와 유교 문화에서 살다보니 옛 사고체계를 그대로 지니고 있어 중생한 한국 크리스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신자들뿐 아니라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운 목사님들마저도 그들의 지성과 감성은 유불교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신앙생활을 ‘행위(Doing)의 목록으로 간주할 뿐 ‘존재(Being)의 변화로 보지 못하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분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다보니 온전한 삶으로 드러나지 않게 되나 봅니다.

Answer 밀러 또 거짓도 국가를 가난하게 만듭니다. 거짓의 아버지 사탄은 사회에 거짓과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케냐인들의 80%가 기독교로 주일마다 교회가 가득 차지만 부정부패가 여전합니다. 뇌물이 일상으로 자리 잡았고 국민들은 가난합니다. 깨진 가정이 준비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기독교 세계관을 전할 때는 매우 실질적으로 이해시켜야 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그들을 가난에서 탈출시켜야 합니다. 사회를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열쇠는 바로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사회를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것도 바로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DNA 사역의 핵심은 바로 이러한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Question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Savior)이심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동시에 주인(Lord)이심을 강조하십니다. 살면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삶의 모든 측면을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도록 기독교 세계관을 훈련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밀러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쓴 <Discipling Nations>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윤명석 역, 예수전도단, 1998)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The Power of Truth to Transform Cultures”(문화를 변화시키는 진리의 힘)입니다. 저는 이 책에서 서구의 무신론적 세속주의와 비서구 지역의 정령숭배(애니미즘) 세계관이 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관이 기독교 세계관과 어떻게 다른지도요. 일의 의미는 무엇이고, 창조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역사는 어디로 가는가? 정령숭배 세계관의 결과는 무엇이며, 성경적 세계관이 왜 우수한지를 우주적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 청지기적 관점, 그리고 청지기로서의 과업에 대한 관점 등으로 설명했습니다. 아까 거짓말이 빈곤의 원인이라고 했는데, 비성경적 세계관에서는 여성의 지위에 대해서도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유교에서도 여성의 지위에 대해 성경과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교에는 남존여비 사상이 있는데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이러한 거짓은 잘못

된 사회 구조를 낳았습니다. 그 결과는 여성뿐 아니라 결국 남자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Answer 김의원 남존여비는 옛날 이야기이고, 이미 한국은 더 이상 유교적 문화가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여존남비’가 되어 여성의 파워가 너무 강해서 문제입니다. (모두 웃음) 이것도 남자와 여자의 성경적 기능을 제대로 알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Answer 밀러 케냐 문화에는 여성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여성을 도구(Tools)라고 부릅니다. 즉 여성은 인간이라는 단어의 범주(category)가 아니라 도구라는 단어의 범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고 도구와 같이 취급됩니다. 아이 낳고 집안일을 하는 도구라는 것이지요. 여성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사회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성을 여성답게 인식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이며, 그렇게 될 때 사회가 변화됩니다. 우리의 정신적 구조가 바뀌어야 사회가 변화됩니다.

Question 지금까지 기독교 세계관이 빈곤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원조보다 생각의 전환을 가져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기독교 내에서 나눔과 분배가 더 중요한가, 성장이 더 중요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진보측에서는 나눔을 더 중시하는 반면 보수측에서는 성장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제성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은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발전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성장한 것은 원조덕분이라기보다는 경제성장을 이룩했기 때문입니까? 경제성장에 대한 성경적 견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밀러 발전은 복잡한 개념이며 매우 포괄적인 개념의 한 부분이지요. 누가복음 2:52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혜’, ‘키’, ‘사랑’, ‘사람에게’ 등의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성장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식적으로도 성숙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개인뿐 아니라 국가의 발전에도 해당이 됩니다.

발전이란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많은 부분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서구의 세속적 세계관에서는 물질적인 성장만을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구의 세속주의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서 도덕적 측면이 없습니다. 가능한 부자가 되라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물론 물질적 성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성장은 물질적인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이디어가 사실보다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을 하시려면 그 이전에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즉 꿈(dream)이 현실을 만들었습니다. 경제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비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가난한 것은 자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비전이 없어서입니다. 콩고를 봅시다. 콩고는 자원이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자연 자원은 어느 나라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가난하고 빈곤으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반면에 싱가포르의 자원이 없습니다. 폭이 40km에 불과한 섬나라에 5백만의 인구가 삽니다. 마실 물도 말레이시아에서 사옵니다. 그런데 가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전은 경제성장을 가져옵니다.



가난한 나라 대부분은 자본과 기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원조와 도움은 의존성향만 키워서 빈곤을 지속시킬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원이나 자산이 얼마나 있는가가 아니라 세계관을 심어주고, 올바른 비전을 갖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싱가포르의 자원은 없었지만, 전략적인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깊은 항구와 지정학적으로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 해운업 발전에 유리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발전하겠다는 비전이 있습니다. 이것이 싱가포르의 발전 원인입니다.

Question 그런데 싱가포르에는 크리스천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반면에 콩고는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기독교 사회는 경제성장을 못하고, 비기독교 사회는 비전을 가지고 경제성장을 했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경제성장에 기여하지 못할까요?



Answer 밀러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교회가 천국에 가는 것만이 기독교인의 목표라고 가르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회에서는 경제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아프리카를 보십시오. 케냐의 경우 60-80%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정령숭배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마 28:18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왕이시냐고 물으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늘나라라고 답합니다. 땅의 주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즉 하늘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왕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백 년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마치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은 아닌 것처럼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라를 제자 삼으라 (Discipling nations!)”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현대 문화를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원론에 빠져 있어 일요일에는 신자이지만 월요일에는 아닙니다.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 나라와 믿음을 연결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쓴 책 <Lifework: A Biblical Theology for What You Do Every Day> (라이프워크: 직업과 신앙이 하나 되는 삶의 능력, 예수전도단)의 주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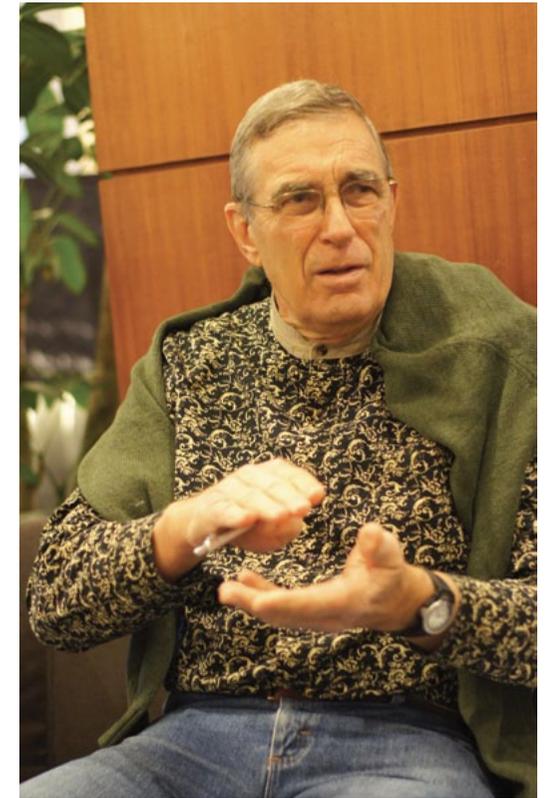
Answer 김의원 이원론에 대한 지적은 적절합니다. 특히 동양 사상에서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려 합니다. 최근 교회는 ‘세속적’이라 믿는 모든 것에서부터 분리되어 ‘거룩’이란 영역으로 숨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목회자’는 물론 ‘평신도 사역자’도 모두 ‘플타임’ 사역자라고 강조합니다. 기능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는 자들입니다.

Answer 밀러 한국뿐 아니라 서구나 아프리카 모든 나라에서도 기독교는 이원론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지만, 성경적 세계관이 아니라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요일의 크리스천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직장에서 기도회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이원론입니다. 기도 모임을 갖지 않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것이 전부 아닙니다. 직장생활을 포함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러져야 합니다. 교회사를 보면 초대교회부터 중세까지 통합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혁명 당시 서구는 자유를 원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에서 자유를 추구하다가 도덕적 세계로부터의 자유도 원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기독교인들 중 일부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섭리하지는 않는다는 이신론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의미도 왜곡했습니다. 다윈 혁명을 통해서 이신론은 무신론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들은 인간의 존재를 하나님 없이 설명하려고 했고, 이것이 북아메리카에 퍼져 나갔습니다. 지금 일부 기독교 교단에서는 이 다윈이즘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리교에서 자랐는데, 출석하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주일 설교 시간에 기적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물 위를 걷느냐? 예수님은 물 속의 돌을 밟고 걸었을 뿐이다. 오병이어 기적은 이기적이었던 군중이 아이가 점심 나누는 것을 보고 자신들의 점심을 나누기 시작한 것이다. 오병이어 기적은 나눔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Question 자유주의 신학을 수용한 교단은 우리와 세계관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군요. 김의원 부총장님은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nswer 김의원 진보주의자들은 성경을 고대 근동에서 종교가 발전하는 과정 중 나타난 하나의 기록물로 간주합니다. 그들은 성경의 내용들을 ‘지금 일어날 수 없는 일은 옛날에도 일어날 수 없다’는 과학의 잣대로 재단하면서 초자연적인 내용을 모두 제거하고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Question 지금까지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주의 교단도 역시 이원론에 빠져 있다는 점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Answer 밀러 그렇습니다. 기독교 근본주의자들 역시 또 다른 극단입니다. 이들 역시 성경적 세계관을 버리고 그리스적 이원론을 수용했습니다. 이들은 다윈이즘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은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과학은 다윈이즘이 지배하게 내버려 두었어요. 과학은 내 신앙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받은 세상에, 나머지 받은 영적인 세계에 걸치고 소위 양다리 걸치기를 하는 것이지요.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가 사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원론에 빠진 교회는 사회에 신앙과 세상을 통합한 답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회에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질문에 추상적이 아니라 실질적, 현실적인 답을 해야 합니다.

Answer 김의원 히브리적 사고에서 보면 삶이란 예배의 한 형태입니다. 주일의 예배공동체뿐 아니라 일주일의 삶의 공동체가 병존해야 합니다.

Answer 밀러 성경은 삶의 모든 영역에 원칙을 제시해 줍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에 경제에 대한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경제나 사업에 대한 말씀이 매우 많습니다. 영혼구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측면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관리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전에 일본에서 건강관리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어느 젊은 여성이 찾아와 15년간 교회에 다녔지만 성경적인 건강관리를 말하는 것은 처음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도시계획을 전공했는데, 하나님은 도시에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좋은 도시는 어떤 도시이고, 나쁜 도시는 어떤 곳인가? 어떻게 좋은 도시를 만들 것인가? 도시에 대한 성경적 견해는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일에는 교인, 평일에는 세속주의자로 살아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한국의 신학교에서 이런 내용으로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한 신학생이 눈물을 흘리며 신학을 공부하는 4년 동안 이런 내용은 처음 들었다고 했습니다.



Answer 김의원 오랜 전에 제가 섬겼던 신학교에서 졸업학년에 기독교세계관 과정을 선택과목으로 개설한 적이 있습니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에 속한 여러 영역의 교수들—경제, 정치, 철학, 사회학 등—이 번갈아 가면서 가르쳤습니다. 그때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도 신학대학 4년, 신학대학원 3년, 총 7년 동안 신학을 배웠지만,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듣는다고 했습니다.

Question **결국 한국을 포함해서 기독교가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목회자의 설교 때문이고, 결국 목회자를 키우는 신학교가 가장 중요한 것이군요. 신학교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신학교가 바뀔까요?**

Answer 김의원 맞습니다. 오랜 전 신학교 교수회의에서 커리큘럼에 세계관 과정을 넣어야 한다고 하자, 한 교수가 세계관이 무엇이라고 질문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모두 웃음) 현재 섬기고 있는 학교에서는 신학대학원 입학과정에서 기독교 세계관 책들을 필독서로 읽게 하고 필기시험을 치루고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신학을 배우기 전에 구비해야 할 과제입니다.

Answer 밀러 신학교를 바꾸기 위해서는 기독교 세계관 과목을 한두 개 넣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커리큘럼을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모든 과목이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해야 합니다. 신학만 가르치고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구원을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이티를 보십시오. 사회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천국에 가는 것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미국의 건국 지도자들은 성경 그대로 나라를 세웠습니다. 미국의 건국을 다룬 문서들의 34%가 성경을 직접 인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건국 문서는 헌법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영국의 윌리엄 월버포스도 그렇습니다. 영국에서 열다섯 가정이 클레팸공동체(Clapham Sect)를 만들어서 노예 제도를 폐지시키고, 노동법을 바꾸고, 기독교에 기초해서 사회를 개혁했습니다. 추상적으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회를 바꾸었습니다.



대부분의 건국 공신들, 아마 70% 정도가 청교도들이었으며, 대부분 정신적으로는 청교도들이었으리라 봅니다. 청교도들은 모든 지식이 연결되어 있어 과학과 신학은 물론 모든 학문을 연결시켜서 교육시켜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유��플렉시아, 즉 지식의 연결을 강조했고, 하버드, 프린스턴 등 위대한 대학들을 세웠습니다.

Question **한국에도 초기 선교사들의 기여로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등의 사립대학들이 세워졌고, 오늘날 최고의 명문사학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세속화되어 기독교 이념으로 세워진 대학들에서조차 기독교적 학문을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기독교 대학을 세우자는 운동도 일어났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왜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등 기독교 대학들이 세속화되었습니까?**

Answer 밀러 크리스천들이 다윈이즘과 현대주의의 틀을 극복하지 못하고 숨었기 때문입니다. 성경만 가르치고, 학문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신학교도 이 원론에 빠지면서 학문의 주도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종의 신자클럽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Question **이렇게 팽배한 이원론을 극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Answer 밀러 저는 낙관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길게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 회복하실 것입니다. 30-40년 후에는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interviewer **김송욱**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러한 변화의 물결이 흘러 넘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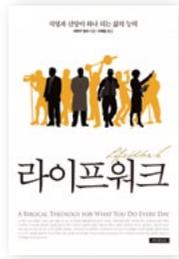


대로우 밀러 DNA(Disciple Nations Alliance) 공동 설립자이며 저명한 작가이자 교사로, 지난 25년 동안 컨퍼런스 및 세미나에서 기독교와 문화, 변증론, 세계관, 빈곤, 여성의 존엄성을 주제로 명 강의를 해왔다. 1981년부터 2007년까지 국제기아대책기구를 섬겼으며, 1994년부터는 부총재로 재직했다. 기아대책기구에 합류하기 전 3년 동안 스위스 라브리 공동체에서 프란시스 웨퍼 박사에게 훈련을 받으며 간사로 사역했다. 국제 예수전도단의 DTS(예수제자훈련학교)와 열방대학 훈련 과정에서 성경적 세계관 및 그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김의원 현재 백석대학교 서울캠퍼스 부총장이다. 숭실대학교 철학과(B. A.), 웨스트민스터 신학교(M. Div., Th. M.)를 졸업했으며 뉴욕대학교 고대 근동어과에서 히브리어를 전공하고 철학 박사(Ph. D.)학위를 받았다. 뉴욕중부교회 설립하고 담임하였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무처장,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신대원장, 총신대학교 총장, 한국복음주의신학회 회장과 개혁주의신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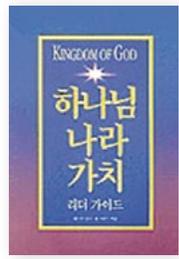
대로우 밀러의 서적을 소개합니다.



직업과 신앙이 하나되는 삶의 능력 라이프 워크

대로우 밀러 저 | 이해림 역 | 예수전도단
먹고 살기 위한 방법? 자아실현의 길? 선교의 수단? 하나님이 일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주신 뜻에 맞게 직업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일까? 기독교 사역이든 일반 직업이든,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일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원하신다. 어떤 분야나 직업에 종사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그분의 사역자로 부르셨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를 함께 섬기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평일의 직장에서도 그분 앞에 온전히 행하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기 원하신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와 직장이 분리된 채 살아간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듯 우리의 기준으로 나누어진 이원론적 세계관을 말씀하지 않으셨다. 교회와 직장,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곳이라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용될 수 있고, 영적인가 그렇지 않은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다름 아닌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 저자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의 일터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다. 일상과 직업을 통해서 삶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화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라이프 워크'의 가치일 것이다.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구원으로 부르심 받았다. 이는 모든 믿는 자가 반드시 응답하며 나아가야 하는 1차적 부르심이다. 하지만 모든 믿는 자에게 각기 다르게 주시는 2차적 부르심은 직업으로의 부르심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나름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부르심 받았다." _ 204쪽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 가치

대로우 밀러 저 | NCD 편집부 역 | NCD
성경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삶을 변화시키는 이야기이며, 그분의 능력의 이야기이자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이다. 120페이지도 채 안 되는 이 책에서 저자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 성경적 세계관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짧지만 명쾌하게 저술하고 있다. 오랜 기간의 선교활동과 캠퍼스 사역을 통해 직접 체험한 이야기들을 성경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다. 단지 나의 삶뿐 아니라 확장된 세계에서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나와 이웃, 그리고 우리 문화 사이의 세계관을 살펴보고 교회안의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교회 밖의 세상으로, 도시로, 문화 속으로,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사탄의 문들을 쳐부수야 한다.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권세를 가지고 나갈 때 사탄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의 권세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_114쪽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대로우 밀러 저 | 예수전도단
이 책의 제목은 독일의 사회경제학자 막스 베버의 명제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를 차용한 것으로, 그의 관점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조리있게 한 편의 논문과 같이 전개하였다. 저자는 유신론에 뿌리를 둔 기독교 세계관과 애니미즘 그리고 세속주의가 어떤 생각을 내포하고 있는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상세히 보여주고 있다. 변화를 가져오는 세계관 개발에 대한 풍요와 진보의 메시지가 담겨 있으며, 만연된 가난과 빈곤, 우상 숭배, 물질만능주의를 변혁시킴으로써 열방을 제자화하는 힘을 강조하고 있다. 이 세상 빈곤문제의 원인이 세계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살아가는 방식을 형성하는 문화적 가치관과 종교적 신념을 설명했다. 가난한 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바로 '성경적인 세계관'이라는 것이다. 더 많은 돈이나 사람들의 도움, 더 많은 프로그램이나 알뜰한 행정, 더 나은 체계나 민중의 참여보다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생각(세계관)임을 강조하고 있다.

"비전에는 두 가지 단계가 있다. 하나는 광의의 비전으로, 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세상을 회복시키고, 기아를 퇴치하고, 그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데 대한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또 하나는 협의의 비전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지역사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보도록 돕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자신들과 자신들의 지역사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한다." _ 20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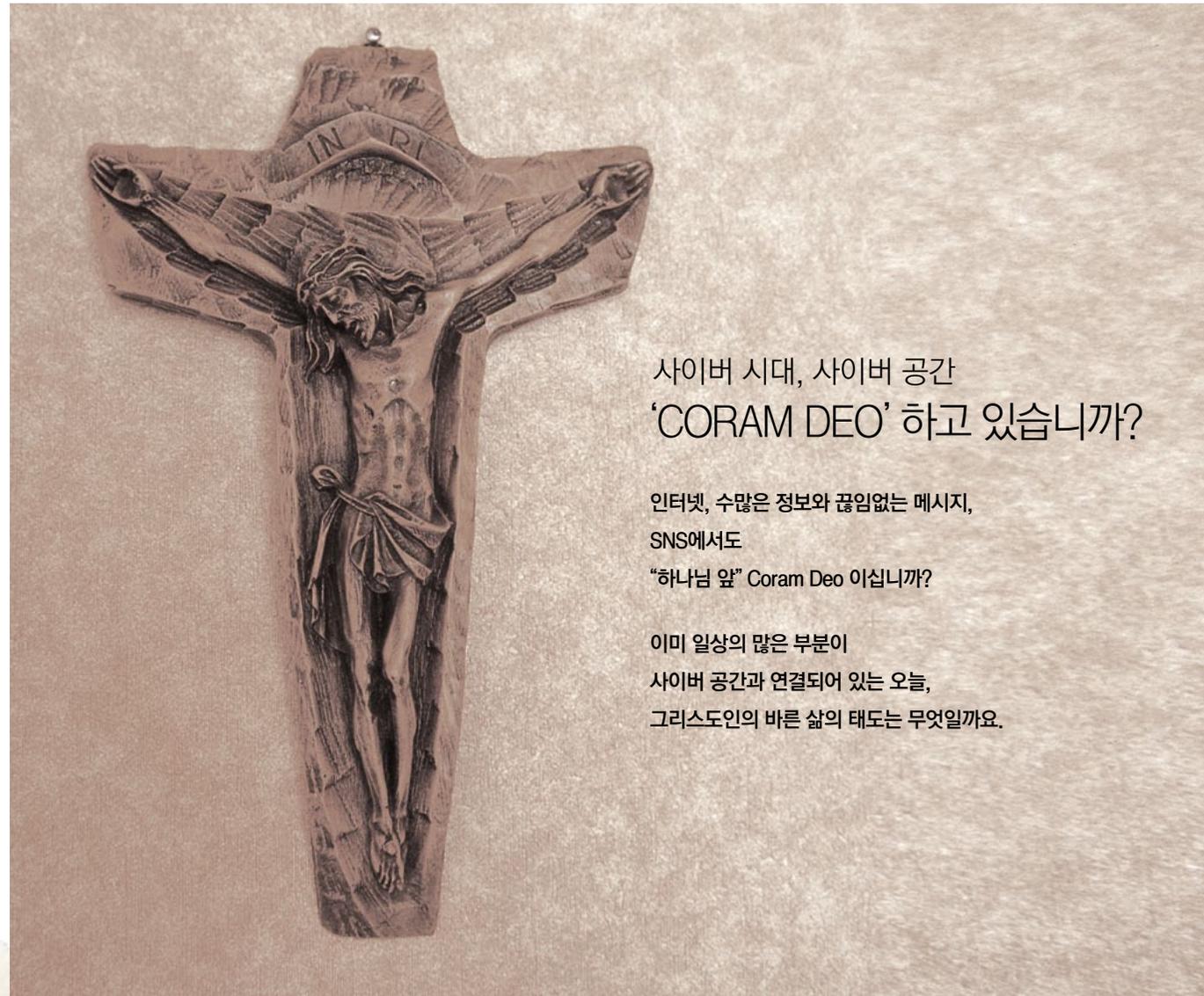
대로우 밀러가 속한
"The Disciple Nations Alliance(DNA)"를 소개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를 지향한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에서부터 시작한다. 건강한 교회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사회 및 문화적 변화를 위해 주도한다. 하나님의 명령이 구성원 모두에게, 사회 전 분야에서 드러나며,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그들을 제자화한다. 우리는 비극적인 역사의 시기에 살고 있다. 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가난과 절망이 넘쳐난다. 오히려 교회가 지역사회와 국가의 요구에 무관한 문화를 말하기도 한다. 지금은 교회가 나라를 제자화하기보다 오히려 국가에 의해 제자화되고 있다. 변화의 과도기에도 넓은 패러다임을 버리지 못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때를 살고 있다고 믿는다. DNA는 개인이 아닌 지역공동체의 제자화를 지향한다. DNA의 사역은 "병든 자에게 치유를,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는 먹을 것을, 다름으로 갈등하는 자에게는 평화를 주는 것"으로 정의한다. 전 세계 형제교회의 자연적 성장에 하나님 나라 가치로 실천되도록 돕는데 단체의 비전이 있다.

DNA <http://www.disciplenations.org/>



WORLDVIEW SPECIAL



사이버 시대, 사이버 공간
‘CORAM DEO’ 하고 있습니까?

인터넷, 수많은 정보와 끊임없는 메시지,
SNS에서도
“하나님 앞” Coram Deo 이십니까?

이미 일상의 많은 부분이
사이버 공간과 연결되어 있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디지털 혁명과 시간, 몸

양성만 (우석대 교수, 기독교학문연구회 철학분과장)



애플의 스티브 잡스 이후 신제품 발표회는 일종의 축제가 되었다. 그가 새로운 제품을 공개할 때마다 발표장에는 수십 개 국에서 수천 명이 몰려들어 그가 내미는 은물에 시선을 집중시키고 그의 프리젠테이션에 숨을 죽였다. 그 전일부터 와서 밤샘을 하는 것은 무슨 종교의 식이나 된 것 같았다. 잡스가 자기 제품 속에 담아 내놓는 것은 신기술에 그치지 않고 새 시대의 영성이라도 되는 것 같았다. 이제 이런 신기술과 첨단제품에 대한 관심은 젊은이들뿐 아니라 노장년층에게까지 퍼졌다. 그만큼 디지털 혁명의 위력은 메가톤급이다.

사람은 자기 밖의 정보를 오감을 통해서 얻는다. 그중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시각과 청각일 터인데, 현대의 전자기기는 이 아날로그 정보를 거의 완벽하게 디지털 정보로 바꾸어 놓았다. 시각에서 이루어진 처음 시도는 흑백의 성긴 점들의 집합들로 실물을 상기시키는 기호 수준이었지만 급속한 개발의 결과 지금은 사람의 망막의 능력으로 볼 때 실물을 직접 보는 것이나 이런 기기들을 통해서 보는 것이나 실질적인 차이가 없을 정도가 되었다. 그래서 잡스는 아이폰 4의 디스플레이에 '망막(레티나)'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다.

청각에서도 같은 일이 실현되었다. 인간은 20Hz와 20,000Hz 사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소리 정보를 디지털화해서 CD로 제작할 때는 1초 동안의 소리를 44,100개의 신호로 바꾸어 표현한다. 그러면 약 2만 Hz의 음파를 표현할 수 있고 그 보다 진동수가 높은 소리는 인간의 귀는 들을 수 없으니 결국 CD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디지털화한 후 이것을 현대 기술은 고속망을 이용하여 필요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인간의 삶을 정보라는 차원에서 해석해 보자면 결국 오감을 통해서 얻은 정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지식, 판단, 의사 결정 내용을 서로 교환하는 체계를 이뤄 사회를 구성하고 문화를 쌓아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

디지털 혁명을 통해 이런 정보 획득과 교환이 이전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뤄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 정보 처리가 얼마 전까지는 컴퓨터라는 단말기를 통하여 이루어지던 것이 이제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스마트폰을 언제 어디서든 몸 곁에 두고 개인 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된 것이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자. 아침에 일어날 때는 스마트폰의 알람 기능을 이용, 이메일 확인하고 답장, 뉴스 검색, 출근할 때 내비게이션 앱 이용, 고속버스 및 기차표 예매, 노트 어플을 통한 메모 관리, 캘린더를 통한 일정 관리, 녹음하고 사진 촬영 및 전송하기 등등.

이런 추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겠다. 더 빨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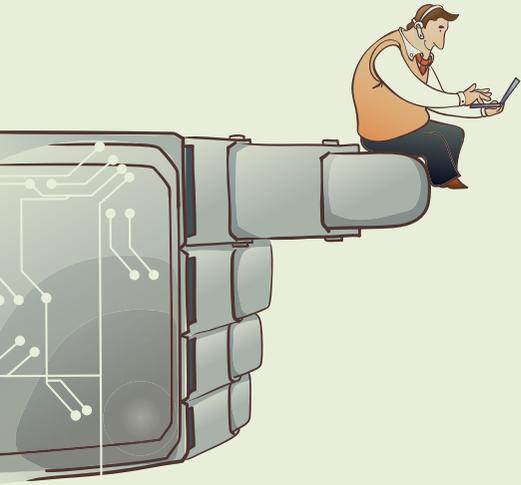


고, 더 예민해지고, 더 똑똑해져서 나중에는 사람의 정신활동이 필요 없는 단계까지 갈지도 모르겠다. 그게 더 안전하고 확실한 길처럼 보이니 말이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 우리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혹시 모르겠다. 이대로 간다면 우리 몸이 지구상

의 어느 한 곳에 있다는 것도 별 의미가 없이 이런 정보망을 통해 우리 정신의 내용 전체가 빛의 속도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실질적으로 공간상의 제한이 사라질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매트릭스>라는 영화는 미래의 사회를 그런 세계로 그렸다.

그러나 이런 현상을 환영하고 즐기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창조주께서 인간을 어떤 존재로 창조하고 어떤 방식으로 살게 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람이 존재를 특징짓는 개념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니, '만물의 영장'이니, '이성적 존재'니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다. 그런 개념 중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시간적 존재'라는 개념이다. 사람이 하나님과 그 존재 방식에 있어서 어떻게 구별되는가 하는 것은 '시간적 존재'와 '영원한 존재'라는 개념쌍을 통해 적절하게 설명되는 것이다.

어거스틴은 『고백록』 11장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에 따르면 사람은 과거에 대한 기억과 현재에 대한 직관,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로 분열되어 사는 존재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다.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분열되어 있지 않다. 그분에게는 천년이 하루와 같고 하루가 천년과 같다. 그분은 모든 시간에 걸쳐 동일하며, 불변하고, 그분에게는 모든 시간이 현재로 주어져 있다. 따라서 혹시 사람 중의 과거사를 모두 알고, 현재 사실을 모두 알고, 미래사도 모두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전지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는 그 앞에 있어서 하나님과 비교될 수 없다.



그분에게는 모든 진리가 현재의 직관의 대상으로서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사실 모든 진리는 그분의 작정과 경륜과 섭리에 의해서 성립하는 것이니 그분이야말로 진리 자체이다. 물론 어거스틴은 시간 속에서 분열되어 사는 인간이 그리스도에 의해 영원한 삶으로 초대된 사실을 인간 삶의 유일한 소망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람이 존재 방식이 시간적이라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삶과 사고가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밥 먹고 사는 것이 대표적이 예가 될 것이다. 우리는 밥 안 먹고 살 수 없다. 그것도 매일 먹어야 한다. 우리 몸은 한 달 치를 한꺼번에 먹고 한 달을 지낼 수 있게 되어 있지도 않다. 그렇게 매일, 매 끼니 먹는 밥이 우리 몸 안에 쌓여서 사람은 아기에서 어른으로 자란다. 그러니 해와 달은 우리 삶의 시간을 일정한 기간으로 분절하고 그 분절된 시간 속에서 살 수 있게 해 주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

이렇게 무엇이 일정 시간 속에서 쌓여야 비로소 그것이 우리 삶의 의미 있는 무엇이 된다는 사실은 시간은 다 똑같은 시간이 아니고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시간의 흐름의 맥락 속에서 비로소 그 성격이 규정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시를 모르지만 그 때가 되면 창조주께서는 그 아들을 심판주로 보내서 구원의 경륜을 종결하시고 심판을 단행하실 것이다. 사람에게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다. 무엇보다 회개할 때가 있는데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그렇게 해야 한다.

사람의 시간적인 존재라는 사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몸을 가진 존재라는 점이다. 사람은 흠으로 지음을 받았고, 흠에서 난 것을 먹고 살며, 죽어서는 흠으로 돌아간다. 몸과 영혼 중 영혼이 중요하다고 어디까지 강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몸이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게 되면 사람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시대가 아무리 모든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실시간으로 이동시키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대부분의 일상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디지털 유비쿼터스 시대가 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시간적 존재요, 몸으로 사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성경은 우리가 시간의 질서에 순응하면서 언제든지 몸으로 해야 할 두어 가지 일을 지적한다. 그 하나는 모이는 것이다. 히브리서 10:24,25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한다. 그리스도 안의 성도의 사귄은 일정한 시간, 일정한 공간에 모여 이루어지며, 모임, 즉 예배는 몸으로 동일한 공간에서 만나서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도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렇게 해야 한다고 권한다.

둘째는 가정이다. 고린도전서 7:5은 부부가 서로 분방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친다.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서로가 합의하여 얼마 동안은 분방할 수 있지만 그후에는 다시 합하라고 명한다. 그것이 부부의 정상적인 관계요, 그렇지 못할 때에는 몸으로 시간 속에서 사는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날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양성만 우석대학교 교양학부 교수이자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산하 기독교학문연구회 철학분과장이다.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비트겐슈타인을 연구하여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기독교학문연구회 초기부터 기독교학문 연구에 관심을 갖고 참여했고 진리관을 비롯한 몇 논문을 썼다. 번역서로 「창조, 타락, 구속(알버트 윌터스 저)」 등이 있다.

그리스도인은 사이버 스페이스를 어떻게 이용해야 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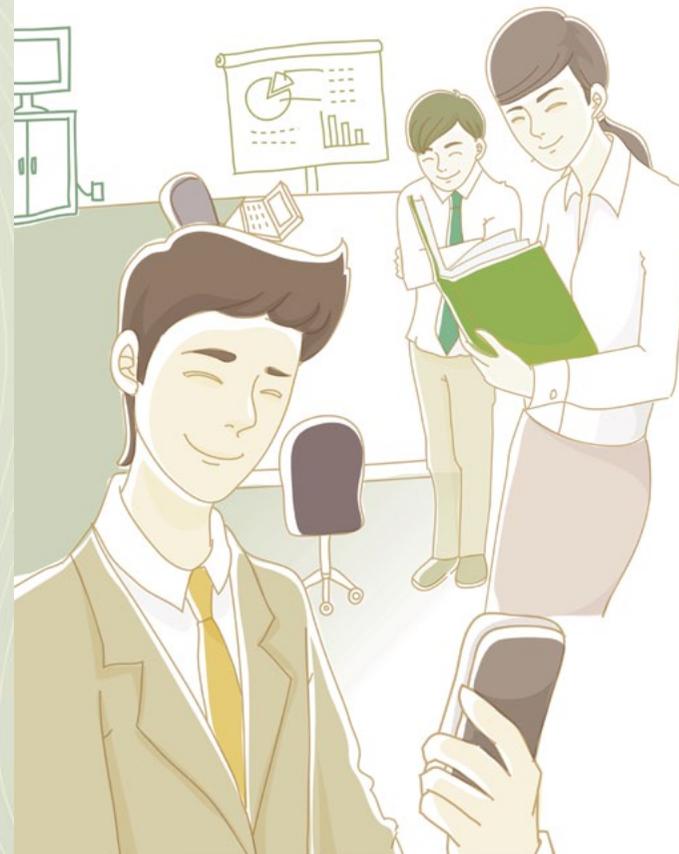
이승구 (합동신학대학원대 조직신학 교수, 세계관아카데미 부소장)



모든 과학 기술이 그러하듯이 사이버 스페이스를 이용하는 기술(IT Technology)에도 유익한 면과 문제점이 공존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IT 기술도 책임 있게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다. 책임 있는 과학을 하는 것도, 과학 기술을 책임 있게 사용하는 것도 사람이다. 지난 세기 초부터 드러나기 시작한 과학과 과학 기술의 악용 사례는 1945년 원자 폭탄의 투하로 온 인류에게 경각심을 일깨웠다. 그 이후로도 과학 기술은 계속 발달하고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책임성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과학 기술을 가장 책임 있게 사용하고, 책임 있는 사용에 대한 지침을 주어야 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조차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참으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먼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IT 기술과 관련한 무책임한 사용 실례들을 살펴보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책임 있는 태도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로 하자.

1.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무책임한 사용 실례들

대표적인 예는 IT 기술을 이용하여 사이버 스페이스를 독자적인 예배 공간으로 만들려는 시도이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인터넷으로 예배드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는 중국적 의미의 “성도의 교제”(교회)일 수 없기 때문이다.¹⁾ 물론, 뒤에 논의하겠지만, 이런 기술을 통해 부가적으로 교회 공동체의 교제와 교육을 도울 수는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 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성도들이 따로 모이지 않고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결국 온전한 인격적 교제가 없으므로 온전한 교회 공동체 모임이라고 할 수 없다. 다시 말하지만, 늘 함께 모여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가 off-line 모임 외에 on-line으로도 교제한다면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전적으로 사이버 스페이스에서만 예배드린다면, on-line 모임이 주가 되고 off-line이 부가 된다면 교회의 본질적 성격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인격적 교제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교회의 적정 규모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 즉, 성도들이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정도가 적절한 것이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뿐 아니라 성도 간에도 인격적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것은 성경적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다. (IT 기술이 발전과 더불어 이내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했던 사이버 교회가²⁾ 아직 미미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교회를 지키시는 주님의 은혜라고도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향으로 몰려가지 않는 것에 여러 모로 감사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부지불식간에 이런 시도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질 수 있으므로 늘 주의하여야 한다.)



1) '성도의 교제로서의 교회와 성경적 교회의 의미에 대하여', 이승구, 『교회란 무엇인가, 재개정판』(서울: 나눔과 섬김, 2012); 이승구, 『성령의 위로와 교회』(서울: 이레서원, 2010)을 보라.

2) 이에 대한 논의로 이승구, 『21세기 개혁신학의 방향』(서울: SFC, 2005), 해당 부분을 보라.

IT기술을 오용하는 두 번째 사례로, 소위 “지교회”를 세워 중계하여 여러 지역의 소의 지교회 성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일을 들 수 있다. (물론 이것도 IT 기술의 범주에 넣기는 애매하다.) 어떤 목회자의 설교를 사모하여 성도들이 모이겠다는 것에 무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런 것을 유도하여 소위 “지교회”를 세워 가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망각한 것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 땅의 모든 참된 교회들은 다 합하여 하나의 교회이고, 각각의 교회 공동체들은 모두 지교회(肢教會), 즉 형제 교회들이다. 참된 교회들은 다 지교회이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소위 “지교회”를 세우는 것은 성경적인 진정한 지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리는 것이다.

설교하는 목사님을 잘 볼 수 있게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는 것을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중심이 되어 가는 오늘날의 현상은 좀 이상하다. 이로부터 한 걸음 더 나가면 목사가 함께 하지 않는, 이를테면 중계되는 예배를 하는 일이 쉽게 나타나게 된다. 이것에 익숙해지면 각자 집에서 모니터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별로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게 될 것이다.



2.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책임 있는 IT 기술 사용

신실한 성경적 교회들이 IT 기술을 사용하여 평소에 말씀을 복습한다든지, 더 많이, 더 깊이 교제하는 것은 바람직한 활용 예라고 할 수 있다. IT 기술은 이처럼 교회의 예배와 교육과 교제를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 나가는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사이버 공간을 통해 좀 더 폭넓게 교제할 수 있다. 이를테면 만나기 어려운 다른 지역의 성도들이 이런 공간에서 서로 교제할 수 있으며, 정신이 같은 다른 교회 공동체의 가르침을 통해 동질의 신앙을 더 튼튼히 세워 나갈 수도 있다.

다소 어렵기는 하지만 사이버 스페이스 상에서 전도도 할 수 있을 것이다. 19세기 영국의 복음주의자들이 당시의 모든 최신 방법을 동원하여 복음을 바르게, 멀리, 폭넓게 전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³⁾ 우리 시대에도 다양한 방도로 이런 일에 힘써 볼 수 있다.

자신이 속한 교회에서 충분히 말씀 양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성도로서 최선을 다해 자기 교회를 섬기고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건전한 성경적 가르침을 얻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예의바른 태도(civility)와 절제(self-control)가 잘 드러나야 그것이 책임 있는 IT 기술의 사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삶의 태도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두 가지 덕목이야말로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드러나야 하는 기독교적인 미덕이라고 할 수 있다. 성도들이 쓴 글이나 댓글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따뜻함과 사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때로 전도의 명목으로 썼다는 글이나 입장을

달리하는 사람의 글에 대한 댓글에서 드러나는 무례함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생각과 이미지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댓글 하나를 달 때에도 이것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깊이 생각하는 선교적인 마음(missionary mind)을 가져야만 한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예의 바름(civility)을 드러낼 수 있다.

또한 스스로 절제(self-control)할 수 있어야 이 바쁜 현대 사회에서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해서 마땅히 우리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다. 그러므로 다른 일은 물론 사이버 스페이스에서도 자기를 잘 조절해야 한다. 다른 과학 기술과 마찬가지로 책임 있게 IT 기술을 사용하는 것도 우리 몫이다.

3. 마치는 말

대부분의 과학 기술은 일반 은총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된 중립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가장 중요하다. 또한 이런 기술을 발전시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도 동일하게 중요하다. IT 기술 자체는 부차적인 중요성을 지니며, 또 그래야 한다. 어떤 과학 기술이 너무 발달하여 우리가 그것을 뒤따라가게 되는 것은 인간이 과학 기술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주어진 기술을 책임 있게 사용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IT 기술을 책임 있게 이용함으로써 지표를 제시하고, 신실하고 책임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선언해야 할 것이다.

3) 이를 잘 강조한 예로 나의 친구 David Currie 박사의 박사 학위 논문을 보라. Cf. "The Growth of Evangelicalism in the Church of Scotland, 1793-1843" (Ph.D. thesis, University of Saint Andrews, 1990).



이승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교수로 총신대학교와 합동신학원,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영국 St. Andrews 대학교 신학부에서 조직신학 전공의 석사 학위(M. Phil.)와 박사 학위(Ph. D.)를 받았다. 합신 교수 외에도 언약 교회의 협동 목사로 말씀을 섬기면서,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 보는 21세기 한국 사회와 교회>, <한국 교회가 나아갈 길>, <우리 사회 속의 기독교> 등의 기독교세계관 시리즈 책과 <교회란 무엇인가>, <사도신경>, <광장의 신학>, <인간 복제, 그 위험한 도전> 등 사회 문제에 대한 책과 <개혁신학 탐구>, <전환기의 개혁신학> 등 개혁신학 책을 내었다.

누가 나의 마음을 만지는가?: 사이버 세상의 진화, 빅 데이터

손화철 (한동대 철학교수)

컴퓨터는 우리의 삶 속에 점점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컴퓨터의 시대는 기계가 중심이 되었던 산업시대와는 다르다. 산업시대의 기술은 인간의 물리적인 능력을 확장하여 무거운 것을 들고, 먼 거리를 빨리 가며, 높이 올라가고, 깊이 파고 들어갈 수 있게 하였다. 반면 컴퓨터는 인간으로 하여금 좀 더 많은 데이터와 정보를 모으고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게 했을 뿐 아니라 나아가 새로운 정보 습득의 장인 사이버 세상을 만들었다. 언론학자 마샬 맥루언은 “전기는 우리 신경체계의 확장”이라고 말했는데, 전기가 마구 돌아다니면서 작동하는 컴퓨터는 우리의 마음의 능력을 확장시켰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컴퓨터가 단순 연산능력을 넘어 통신과 연결되면서 본격적으로 인터넷과 사이버 시대가 시작되었다. 갑자기 세상이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되었고, 사람들은 함께 공유하게 될 엄청난 정보에 대한 기대감에 넘쳤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무엇이 좋은 정보인지 분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자크 엘렐의 말처럼 “너무 많은 정보는 정보가 아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새로운 기술이 생겼다. 사용자가 알고자 하는 정보를 제 때 제공하는 기술, 사용자의 마음을 읽어내는 기술이다. 철학자가 ‘거북이’를 검색하면 아킬레스가 달리기로 거북이를 이길 수 없다고 한 그리스 철학자 제논의 역설이 제시되고, 어린이가 ‘거북이’를 검색하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나오는 식이다. 워낙 조용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발전이어서 부각되지 않고 있지만, 요즘 회자되기 시작한 소위 ‘빅 데이터’(big data) 기술은 컴퓨터 기술이 인터넷 기술로 이어진 것만큼 엄청난 혁신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사용자가 인터넷에서 활동한 기록들을 모아 의미 있는 정보로 바꾸는 것이다. 인터넷에서 활동한 모든 흔적은 인터넷 상에 그리고 컴퓨터에 고스란히 남게 되는데, 그 흔적으로 사용자들을 분류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청국장’을 검색한 후 ‘청국장 칼로리’를 선택하는 사람은 다이어트 중일 가

능성이 많다. 이들 중 칼로리 관련 검색을 계속하는 사람들에게는 음식 이름을 검색할 때마다 다이어트 식품과 관련된 검색결과를 제공하는 식이다. 아직 시작 단계인 것으로 보이지만, 사용자의 소셜 네트워킹, 인터넷 쇼핑, 주요 검색어, 가입한 인터넷 동호회 등에 대한 정보가 모두 연동된다면, 동일한 검색어에 대한 결과가 사람마다 달라질 것이다.

보통 인터넷을 통해 ‘내가’ 정보를 찾거나 남과 소통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용자가 항상 주체인 것은 아니다. 희명건 바탕에 별다른 광고도 없는 구글 검색엔진을 보면서 어떻게 돈을 벌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높은 연봉을 주고 사업을 확장시키는지 의아해 했던 적은 없는가. 엄청난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 능력을 기반으로 사용자가 추상적이고 막연한 검색어를 입력해도 적절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 바로 구글의 성공 비결이다. 구글뿐 아니라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같은 큰 회사들도 엄청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정보 저장 능력의 향상,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기기의 발달 등과 맞물려 2025년까지 인터넷에 올려지는 데이터의 양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두뇌가 처리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한다. 최고로 상세한 지도를 만들려다가 실제의 땅과 동일한 크기의 지도를 만들었다는 어떤 왕의 신화처럼,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데이터가 온라인 상에 저장되게 될 지도 모른다.

앞서 말한 것처럼 개별 사용자를 겨냥하지 않더라도, 축적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면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가능해진다. 일상 언어의 사용례를 많이 모으면, 인터넷 자동 번역기를 통해 번역된 문장이 좀 더 자연스러워진다. 모바일 기기를 통해 모여든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와 시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것으로 상권 분석을 할 수 있다. 매일 특정 분야의 뉴스를 보고 특정 쇼핑몰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좋아할 만한 뉴스나 광고를 포털 사이트 첫 화면에 띄워줄 수도 있다.

소셜미디어에 올린 짤막한 글들을 키워드 중심으로 분석하면 특정한 정치적 성향이나 연령대를 파악할 수 있는데, 선거 때 20대에게는 등록금이나 취업 관련 공약을, 70대에게는 노인복지에 대한 공약을 보내는 것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상당 수준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대선 지지도 분석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파악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나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꼭 필요한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받는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인터넷 상에 남은 과거의 흔적을 통해 나의 판단과 경향성이 계산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보가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렇게 주어진 정보는 또한 내 미래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결국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정보만을 접하게 되어 과거의 성향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인터넷을 통해 정치 기사를 보는 사람들은 수많은 선택지 가운데에서 자신의 마음에 맞거나 반대로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기사를 택하게 된다. 반대 의견이 나오는 기사를 보는 것은 보통 비판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경우이던 다른 방식으로 선택 이전의 입장을 더 강화하게 된다. 사용자의 뉴스 선택도 이렇게 편향적인데, 인터넷 검색 업체와 포털들이 내가 좋아할 만한 정치 기사를 골라 첫 화면에 제공한다면 이런 현상은 훨씬 더 심해질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 엄청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었는데도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 사회의 이념적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음을 생각할 때, 이러한 우려는 전혀 지나친 것이 아니다.

나아가 대량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구글 같은 회사는 세계 3위의 서버 생산 회사이지만, 그 서버들을 만들어서 직접 사용할 뿐 팔지 않는다고 한다. 구글은 절대 데이터를 잃지 않는다고도 하는데, 여기에는 없어져버린 홈페이지나 지워버린 댓글도 포함될 수 있다. 대단한 능력이고, 동시에 엄청난 힘이다. 정보가 곧 힘이라면 정보를 가진 이가 바로 강자이고, 결국 우리는 우리가 제공한 정보를 모아 힘을 가지게 된 누군가에게 기댈 수밖에 없게 된다.

버스 안에서 듣게 된 우연한 트로트 한 자락이 어디엔가 걸려 있던 묘한 느낌을 건드릴 때 나의 마음은 공감을 얻은 자의 가슴 저림으로 열리고 넓어진다. 마찬가지로 빅데이터의 맞춤형 정보는 나를 한쪽 방향으로 몰아가며 편협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품고 있으면서도 몰랐던 고민과 답답함을 꼭 집어주는 선생님이나 친구는 나를 세워준다. 그러나 모르는 사이 사람들을 이런저런 범주로 구별하여 대상화하는 검색 기술은 결국 사용자의 실질적인 복종을 요구한다. 우리의 마음을 읽어내는 빅데이터 기술의 놀라운 성취와 그것이 주는 만족은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라는 찬양의 고백과는

분명히 다르다. 문제는 주님만큼은 아니더라도, 복잡한 컴퓨터 알고리즘이 우리 마음을 만지고 유혹하며, 궁극적으로는 만들어가려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검색해서 유익을 얻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검색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이 새로운 기술이 가지는 함의와 영향력을 잘 이해하는 것이다. 기술철학자들은 기술을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과 사회의 구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파악한다. 우리의 마음을 기계적으로 읽으려는 빅데이터 기술은 바로 그 극단적인 예이며, ‘어디로 뿔치 모르는’ 사람의 마음을 사실상 기술의 영향력 아래로 끌어들이려는 엄청난 시도이다. 그러나 편리함과 효율성을 누리는 것에 급급해 하지 말고 그 대가가 무엇인지 한 번 성찰해보는 것만으로도 인간의 자율성은 어느 정도 확보되는 셈이다.

나아가 지금까지 사이버 세상과 관련하여 제기되어 온 우려와 그에 대한 대안의 차원을 한 단계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많은 이들이 인터넷의 바른 사용과 콘텐츠에 관심을 집중시켜 왔다. 인터넷 중독, 실명제, 음란물, 해킹, 악성댓글, 불법 복제, 포르노그래피 같은 것들이 그 예인데, 이 문제들에 대한 여러 논의는 기술을 중립적 도구로 보는 입장에 기초한 경우가 많았다. 빅데이터 기술은 우리의 눈길을 다시 권력과 자본으로 향하게 한다. 사이버 세상이 자유와 해방, 평등의 공간이 되리라는 것은 애당초 피상적인 기대였다. 사용자가 인터넷 상에서 욕하지 않고, 실명을 밝히고, 음란물을 멀리하면 최소한의 안전과 편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도 마찬가지다. 빅데이터 기술로 우리의 마음을 주무르고 나를 만들어가는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저런 방식으로 사이버 공간을 지배하고 싶어하는 거대 기업과 정부를 끊임없이 감시하고 그들에게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고 압박해야 한다.



손화철 벨기에 루벤 대학교에서 기술철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 글로벌리더십 학부 철학 담당 교수이다. 『현대 기술의 빛과 그림자: 토플러와 엘릴』(김영사)을 썼고, 『길을 묻는 테크놀로지(CIR)를 우리말로 옮겼으며, 『과학철학: 흐름과 쟁점, 그리고 확장(장비)을 비롯한 여러 책을 함께 썼다.

개인정보의 정치학

성기진 (퀸즈대 철학박사, 웹 프로그래머)



파놉티콘과 프라이버시 불감증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 사상을 주창한 18세기 영국의 법학자 제러미 벤담 Jeremy Bentham은 교도소를 설립하는 데 전재산을 투자했다가 결국 파산했다고 전해진다. 벤담이 세우려고 했던 교도소는 그가 고안해 낸 '파놉티콘 Panopticon'이라는 형태의 건축물이었다. 최소한의 비용과 최대한의 효과를 강조하는 공리주의자의 아이디어답게, 죄수들을 원형으로 배치하고 그 중앙에 감시탑을 둔 파놉티콘의 목적은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대한 많은 죄수들을 감시하는 것이었다. 벤담의 생전에는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파놉티콘의 원리는 교도소는 물론 현대의 공장, 학교, 병원, 사무실 등의 디자인에 큰 영향을 미쳤다. 구석구석마다 CCTV 카메라가 설치된 현대의 도시는 그 자체가 거대한 파놉티콘이기도 하다.



벤담의 디자인을 기초로 1928년에 세워진 쿠바의 프레디시오 모델로 교도소

사이버 공간에서도 감시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는다. 9/11 테러 이후 이슬람 과격분자 색출에 혈안이 된 미국의 경우, 하루 1천억 통 이상의 메일을 감시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이 가동중이라고 한다. 이렇게 소수의 감시자들이 다수를 철저하게 감시하는 사회 구조를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푸코(Michel Foucault)는 '파놉티콘주의(Panopticism)'라고 부른다. 그러나 국가 기관의 스파이들만이 현대인의 사생활을 캐묻고 다니는 것은 아니다. '빅 데이터'라는 신조어가 대변하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들, 인터넷 검색 사업자들, 대형 쇼핑몰들은 웬만한 정보기관도 부러워할 만큼 막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터넷 상의 각종 서비스에 가입하면서 아무 거리낌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다. 같은 정보를 국정원이 수집했다면 '민간인 사찰'이라며 한바탕 난리가 벌어졌을 텐데, 페이스북이 수집하니 괜찮다고 여기는 것이다. 특히 인터넷에 대한 어떤 거부감도 없이 자라온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들의 프라이버시 불감증은 무서울 정도이다. 카카오톡으로 속마음을 털어놓고 구글로 포르노를 검색하면서도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의 서버로 전송된다는 사실에 전혀 불안해하지 않는 모습은, 단지 IT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파놉티콘 신봉자들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자발적으로 사생활을 떠벌리고 다니는 것을 정상으로 여기는 세상이 된 것이다. 심지어 미국의 어느 잡지는, 페이스북에 사생활을 털어놓지 않는 사람은 다른 애인을 숨기고 있거나 변태적인 취미를 가졌을 수도 있으니 사귀지 말라는 조언(?)을 하기도 했다.

지그문트 바우만(Zygmunt Bauman)과 데이비드 라이온(David Lyon)은 이렇게 기업들이 소비자들의 사생활에 파고들고 소비자들도 쉽게 개인정보를 내놓는 현상을 가리켜 '포스트-파놉티콘주의(Post-Panopticism)'라고 하였다. 파놉티콘이 근현대의 막강한 국가 권력과 중앙 집권체제의 상징이라면, 포스트-파놉티콘주의는 소비 지향적 포스트모던 사회를 대변하는 셈이다.

페이스북 회원 1명의 가치는 5달러

오랫동안 유학을 떠나있다 보니 예전에 사용하던 인터넷 ID들은 대부분 휴면 상태가 되거나 잊어버리고 말았다. 귀국 후 하나씩 되살리거나 재가입하는 절차를 거쳤는데, 요구하는 개인정보의 양이 그야말로 '헐~'이었다. 대부분의 해외 인터넷 서비스들은 이름과 메일 주소,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주민번호부터 직장, 학교 이름까지 온갖 개인정보를 다 수집하는 것이다. 게다가 서너 군데의 마케팅 업체에 개인정보를 넘겨준다는 약관에 일일이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이 불가능하다.

국내 인터넷 서비스들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방만한 관리 때문에 한때 구글 등 해외 서비스에 가입하는 '사이버 망명'이 유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외 기업들도 개인정보 수집에 혈안이 된 것은 마찬가지이다. 대놓고 요구하지는 않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사용자의 취향과 클릭 패턴을 분석해서 마케팅에 활용하는 기술은 오히려 더 발달되어 있다. 페이스북의 재정 보고는 '회원 한 명당 광고 수익 몇 달러'라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10억 명이 넘는 회원들에게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신 광고주들에게서 돈을 받아 운영되는 회사이기 때문이다. 광고료를 많이 벌려면 각각의 회원이 가장 관심 있어 할 만한 광고를 보여 주어 클릭 수를 높여야 한다. 그러려면 회원들의 취향을 잘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다치는 대로 수집하고, 가장 사소한 '좋아요' 하나하나마저 분석하는 것이다. 포스트-파놉티콘주의 사회에서는 더이상 소비자가 왕이 아니다. 광고주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소비자는 또 하나의 상품일 뿐이다. SNS 기업들이 더 많은 이윤을 얻으려면 회원들로부터 더 많은 개인정보를 얻어내야 한다. 그래서 SNS 기업들은 소비자들이 거리낌없이 사생활을 털어놓도록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다. 작년 4월 페이스북이 1조 원 이상을 들여 사진 편집 및 공유 서비스인 '인스타그램'을 인수한 것은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수없이 찍어대는 사진들을 뒤져볼 필요를 느꼈기 때문이다. 얼마 후 인스

타그램의 약관이 개정되었다. 사용자들의 모든 사진을 페이스북이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내용이였다.

잘못한 것이 없다면 숨길 것도 없다?

에릭 슈미트(Eric Schmidt) 구글 회장은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구글이 지나치게 수집하고 있다는 지적에, “만약 구글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있다면, 당신은 뭔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숨길 것이 없다면 겁낼 필요도 없다”는 대답을 했다. 잘못된 것이 없다면 사생활이 송두리째 인터넷에 공개된들 걱정할 필요 없다는 이 발언은, 페이스북을 쓰지 않는 사람은 수상한 사람이라는 모 잡지의 조언과 일맥상통한다. 파놉티콘주의 사회가 도청 장치 등을 사용해 개인정보를 강탈해 간다면, 포스트-파놉티콘주의 사회는 사회적 압력을 통해 소비자들이 개인정보를 털어놓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게다가 그런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변태, 범죄자, 또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라는 인식을 널리 퍼뜨림으로써, 포스트-파놉티콘주의를 비판하는 것조차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이 없다면 숨길 것도 없고, 숨기고 싶은 것은 모두 잘못이라는 이 논리에는 몇 가지 치명적인 허점이 있다. 첫 번째는 사람이 프라이버시를 원하는 것이 꼭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는 아니라는 점이다. 부부 관계를 갖거나 화장실에 갈 때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프라이버시를 원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다. 바울 사도는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은 물론 배우자조차 멀리해야 할 때가 있다고 했다(고린도전서 7:5). 어떤 사람들은 프라이버시가 현대 개인주의의 산물이라고 매도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두 번째는 개인정보의 유출이 가져오는 피해이다. 2011년 7월 네이트에서 3천 5백만 명의 비밀번호와 주민번호 등이 유출된 사고를 비롯하여,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 해킹으로 흘러나간 개인정보만 수억 건에 달한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본인 사칭, 보이스피싱, 스팸메

일, 스토킹 등 다양한 불법 행위에 사용되어 선량한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은 해킹의 위협에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회원들의 탈퇴를 막기 위해 은폐와 변명하는 데만 급급하다. 사생활을 다 털어놓아도 된다고 자신있게 말하던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생활을 알 권리가 과연 SNS 기업들에게 있느냐는 것이다. 이는 것이 힘이라는 말도 있듯이, 누군가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의 삶에 간섭할 권력을 얻게 된다. 내 취향과 소비 패턴을 알고 있는 SNS 기업들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광고를 보여줌으로써 앞으로의 내 소비 패턴을 조종할 수 있고, 나아가 정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은 단순히 서버에 주민번호나 주소 등을 차곡차곡 쌓아두는 과정이 아니라, 신생 인터넷 기업들과 전 세계 네티즌들, 그리고 지금까지 개인정보를 관리해온 국가 기관들 사이의 권력 관계를 재정립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옛날, 다윗 왕이 인구 조사를 실시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리셨다(사무엘하 24장). 인구 조사는 단순히 머릿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군사 정책과 조세 정책의 중요한 틀을 세우는 일인데,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마치 자기 것인 양 다루었기 때문이다. 다윗이 교만의 대가를 치러야 했다던 구글과 페이스북과 카오톡은 어떨까? 한 나라의 왕조차도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한 날 기업이 수억 명의 사생활을 일일이 기록하고 분석하여 마케팅에 이용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지 곰곰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국가 기관의 철저한 감시를 강조하는 파놉티콘과 달리, 포스트-파놉티콘주의 사회에서는 국민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SNS 서비스의 약관에 동의하고 자신의 삶을 공

개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실상은 그렇지 않다. 현대의 인터넷 서비스들과 사용자의 관계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동의’를 클릭만 하면 타인의 개인정보를 돈벌이에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상업주의에 물들어 있다. 심지어 정당한 프라이버시를 원하는 사람들을 변태나 범죄자로 매도하고 있다. 이것은 체제 유지를 위해 국민들을 무자비하게 감시하고 조종하는 독재 국가의 파놉티콘보다 조금도 나은 바가 없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세계 각국 정부가 뒤늦게라도 인식하고 기업들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과 방만한 관리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라는 점이다. 지난 5년여 간 제한적 본인확인제, 일명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면서 수많은 인터넷 서비스들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도록 했던 우리나라도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가 극심해지자 작년 가을 정책을 180도 바꾸어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기에 이르렀다. 유럽에서는 제3자 쿠키(Third-Party Cookies)를 통한 마케팅 목적의 네티즌 감시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급변하는 인터넷 업계의 행태를 정부의 규제만으로 바로잡기는 어렵다. SNS 기업들, 그 밖의 인터넷 서비스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제작자들, 그리고 회원 제도를 운영하는 모든 단체들이 개인정보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감시학(Surveillance Studies)’을 연구하는 캐나다 퀸즈대학교의 데이비드 라이온(David Lyon) 교수는 우리가 개인정보를 다룰 때 반드시 명심해야 할 한 가지를 가르쳐 준다. 개인정보는 단



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느 한 사람의 삶이 담긴 이야기라는 사실이다. ‘빅 데이터’를 운운하는 SNS 기업들은 수억 명의 개인정보를 주무르면서도 막상 그 정보의 출처를 망각하기 쉽다. 그러나 개인정보에 인격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청지기의 자세로 관리에 임한다면 그 정보를 마구 팔거나 해커에게 빼앗겨 누군가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은 할 수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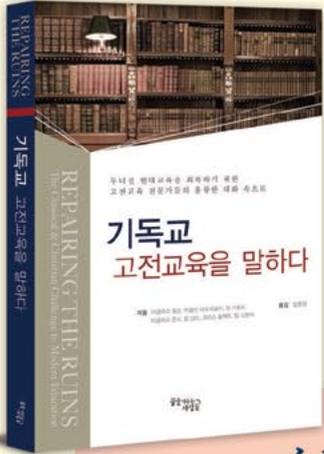
마찬가지로, SNS를 이용하는 네티즌들도 자신의 개인정보를 소중히 다루는 법을 익혀야 한다. 타인의 삶 이야기를 존중하는 만큼, 자신의 삶 이야기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내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도덕한 기업들이 프라이버시 불감증을 아무리 부추겨도 우리는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는 지혜가 필

요하다. 한 번 인터넷에 올려놓은 정보는 아무리 ‘삭제’를 눌러도 어딘가의 서버에 백업되어 남아 있고, 누군가의 스크린샷으로 다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아이들이 집 주소나 아파트 비밀번호 등을 무심코 인터넷에 올리지도 않도록 지도하고, 자신과 아이들이 사용하는 SNS의 프라이버시 설정을 다시 한 번 점검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새 서비스에 가입할 때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에서는 가능하면 탈퇴하고, 광고 없는 어플리케이션을 구입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성기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UBC) 철학과를 졸업하고, 캐나다 퀸즈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철학 및 과학철학을 공부하여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리브리공공체 연구비서 및 프리랜서 웹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다.

무너진 현대교육을 회복하기 위한 고전교육 전문가들의 훌륭한 대화 속으로



기독교 고전교육을 말하다

지음 | 더글라스 윌슨, 마릴린 데트웨일러, 탐 가펠드, 더글라스 존스, 짐 낸스, 크리스 슬릭트, 탐 스펜서

옮김 | 임중원

정가 | 15,000원 | 신국판 352쪽

소명 중·고등학교
새이레 기독교학교
서울국제크리스천아카데미) 교사·학부모 필독서 선정!
고신대 기독교 교육학과 교재 채택!

“왜 고전교육이 필요한가?” 교육은 언제나 우리 모두의 관심거리가 되어 왔다. 부모와 교사인 우리는 학창시절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받았던 교육의 부족함을 느끼며, 교육에 대한 저마다의 고민과 대안을 찾고 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한단 말인가? 이 책은 고전교육에서 그 해답을 제시한다. 이 책의 저자들도 처음에는 동일한 질문에 봉착하였다. 그런데 이들은 고전교육에서 신뢰할 만한 정답을 찾아냈다. 그래서 현대적인 교육 방법론과 고전교육의 트리비움이 어떻게 다른지, 또한 고전교육을 확실하게 기독교 교육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추천의 글

이 책은 성경적인 세계관, 고전적인 지성에 대한 성경적 제안을 충실하게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기독교 학교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세워가는 문제, 해결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_신병준(좋은교사운동 이사장/소명중고등학교 교장)

이 책은 기독교 교육의 본질과 고전교육을 정리한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주도의 공교육뿐만 아니라 원안에서 벗어난 기독교 교육의 문제까지 성경을 중심으로 파헤치고 그 해결점까지 정확히 적고 있다.

_이경원(서울국제크리스천아카데미 교장)

고전교육 방법인 '트리비움(Trivium)'은 천 년 이상 실험과 증명을 끝낸 자기주도 학습의 가장 요긴한 도구이다. 이 책은 지난 삼십 년 이상 고전학교에서 트리비움에 헌신하고, 숙달된 교사들의 살아있는 이야기다.

_안정진(서울국제크리스천아카데미 교감/교목)



WORLDVIEW COLUMN



주일학교 교사를 위한 기독교세계관 학교

주일학교 교사 멘토링!
주일학교 교사 니고데모 씨, 멘토 신국원에게 묻다!

HOW TO, 주일학교
다음세대를 위한 기독교세계관 교육,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세상을 바꾸는 주일학교 교사의 필독서!
(누구나 쉽게 배우는 신학)



주일학교 교사 니고데모 씨, 멘토 신국원에게 묻다!

☞ 신국원 (충신대 신학과 교수, 세계관아카데미 소장)

주일학교 교사 니고데모 씨,
파릇파릇한 새싹이 입술 쪽 내밀고 자라나듯 오늘도 우리 학생들은 자랍니다.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Q1. 요즘 학생들은 온통 '신상'에 빠져 있습니다.
오래된 것을 터부시하는 요즘 아이들에게 성경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요즘 사람들은 새로운 이야기에만 관심을 쏟습니다. 그러나 정말 좋은 이야기는 듣고 또 들어도 물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영화나 노래는 리바이벌 되어 돌아오곤 합니다. 그런데도 요즘은 옛 이야기라면 보수주의를 떠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통에 집착하느라 현실적인 능력이나 미래의 비전이 없는 이들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은 해봅니다.

옛 이야기나 전통 자체가 잘못된 아닙니다. 훌륭한 과거 없이 밝은 미래가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적이라는 말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진보주의를 가볍게 여기지 않지만 두려워하거나 혐오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수주의보다는 개혁주의를 더 좋아합니다.

개혁이란 과거만 있는 수구나 미래만 말하는 급진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개혁이란 끊임없는 과제입니다. 참된 교회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개혁한다는 말은 구호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일대학의 역사학자인 펠리칸은 바른 전통을 전통주의와 구별한 적이 있습니다. 즉 진정한 전통은 "죽은 자의 산 신앙"이지만, 전통주의는 "산 자의 죽은 신앙"이라 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이지만 살아 있는 이야기로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이야기가 죽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를 살아야 할 사람들의 비전이 될 수 있으니까요.

"성경의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죽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어지는 이야기

조지 바나(George Barna)는 『비전의 능력』이란 책에서 비전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비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에게 주시는 것으로 미래에 대한 바람직한 일에 대한 분명한 정신적 이미지이다.”

그는 또한 재즈 음악가의 이야기로도 비전을 정의하였습니다. 리듬을 정의해보라는 질문에 음악가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리듬을 알면 정의가 필요 없고, 모르면 정의는 전혀 도움도 안 된다.” 비전의 사람에겐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비전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떤 설명도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도 아이들에게 성경의 비전을 정의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비전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실하게 전해 주면 됩니다.

우리들이 옛 성도들을 따라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 왔듯이 아이들도 이들의 삶을 따라 살면 같은 비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비전은 이렇게 옛날 이야기를 통해 주어집니다. 성경은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히브리서 11장이 말씀하는 바와 같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 끝자락에 와야 합니다. 우리 이야기도 요한계시록 22장 후반부 어딘가에서 위대한 성경 드라마의 일부가 되어야 하니까요.

“성경의 비전은 지금도 우리의 삶과 말을 통해 이어 집니다.”

Q2.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성경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살아 있는 비전과 소망으로 가르칩시다.

아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성경 속 옛 이야기뿐 아니라 요즘 예도 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텔레비전에 본 이야기가 아니라 옛 이야기를 통해 오늘을 사는 바로 여러분 자신의 믿음 이야기 말입니다.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한 이야기도 좋습니다. 그것은 소망이며 믿음이며 비전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의 실상이고 증거”입니다. 그것은 또한 실제요 현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전과 소망은 지금도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유이자 능력의 원천입니다.

이러한 비전이 바로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모든 교육은 근본적으로 스토리텔링, 즉 이야기입니다. 성경 이야기는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듣는 이야기입니다. 저의 어머니도 그런 분이셨습니다. 우리

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주일학교를 교육해야 합니다.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아이에게 신앙의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마음 말입니다.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언제나 어른들의 기쁨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가 끊어지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출현합니다. 교사가 옛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현실을 조명하기 위함입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는 까닭은 향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도 중요한 순간이면 반드시 옛 성도들의 이야기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족보들이 등장합니다. 개혁주의 자들은 이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경 이야기를 좋아했습니다.

“성경 이야기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만들어 냅니다.”



신앙 교육과 하나님 나라 비전

한 유명한 축구팀 코치는 경기에서 진 다음 날 아침이면 반드시 일찍 선수들에게 기초 훈련부터 시키곤 했습니다. 그는 공을 쳐들며 “제군들, 이것이 공이다”라는 말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이지만 신앙에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다원주의와 상대주의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에게는 성경의 진리에 든든히 서는 것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부모와 교회 교사는 아이들이 신앙의 토대를 다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님과 주일학교 교사, 목사님들의 복을 누렸습니다. 제 어머니도 성경 이야기보다는 공부하라는 꾸지람을 더 자주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덕에 성경을 읽었고, 좋은 목회자와 교사들로부터 배우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아내와 더불어 딸들이 아직 글을 모를 때부

터 그럼 성경을 통해 이 이야기를 열심히 보이고 들려 주려 했습니다. 물론 돌이켜 보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가정에서도 신앙교육을 받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성경적 비전을 가지게 된 것은 훨씬 뒤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목이 지금까지 저를 이끌어 왔습니다. 적어도 지난 40년은 세상의 여러 이념들로 시야가 어지럽던 시대임에도 성경의 진리로 눈이 밝아졌다고나 할까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니고데모처럼 새로운 안목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 교육은 아이들의 눈을 열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합니다.”



신국원 총신대 신학과 철학교수로 본 단체 실행위원이자 세계관아카데미 소장이다. 저서로는 『변혁과 살롬의 대중문화론』, 『신국원의 문화 이야기』, 『포스트모더니즘』, 『니고데모의 안경』(이상 N/P) 등이 있다.



다음세대를 위한 기독교세계관 교육,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유경상 (CTC 청소년세계관교육센터 대표)

다음세대가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을 견고히 하며, 나아가 삶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부모, 교사, 목회자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요 책임일 것이다. 다시 말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하는 것은 기독교세계관 교육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목적에 따라 다음세대에게 기독교세계관을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다시 말해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지난 호에서 이야기했던 아이들의 현실, 특히 어떤 세계관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와 위에서 언급한 기독교세계관 교육의 목적을 같이 고려해 볼 때 다음세대를 위한 기독교세계관 교육과정을 세워 볼 수 있다.

교육목적과 아이들의 상황을 동시에 고려한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기독교세계관의 핵심 원리를 가르치고 이해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원리들을 그들의 삶 속에 적용시키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다음세대에게 기독교세계관을 가르친다는 것은 기독교세계관의 원리를 이해하고 삶 속에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필자는 기독교세계관 교육을 위한 몇 가지 목표들을 세워 보았고 이를 토대로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를 정리해 보았다.

첫째, 기독교세계관 교육의 목표는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기'(worldview)이다.

이것은 기독교세계관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생각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말처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사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과 기독교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훈련을 통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전공(또는 전문분야)이나 일상의 삶 속에서는 기독교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거나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세계관은 일종의 안경과 같다. 사람들은 자신의 세계관으로 삶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행동한다. 다시 말해 세계관이 나의 생각, 행동,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자신의 세계관을 파악하고 점검하는 일은 중요하다. 그렇다면 사람마다 세계관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인간으로서 던질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중요한 인생 질문에 따라 달라진다. 첫째, 이 세상의 기원은 무엇인가? 또는 진리란 무엇인가? 둘째, 이 세상의 고통과 문제는 무엇 때문인가?

셋째,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이들 질문에 대한 기독교적 답변은 한마디로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떤 주제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을 세우는 틀을 제공하는 동시에 문화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세계관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기준이 된다. 한마디로 창조, 타락, 구속의 틀은 기독교세계관의 구성요소일뿐만 아니라 기독교적 사고를 돕는 도구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이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게 만들려면 기독교세계관의 구성요소인 창조, 타락, 구속의 핵심 내용을 가르쳐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틀을 통해 삶과 문화를 바라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훈련해야 한다. 어떤 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문들을 던지고 생각을 정리하도록 훈련하는 것은 기독교적 사고를 정립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 이 "주제"의 창조 목적은 무엇인가?(목적, 본질)
2. 이 "주제"는 무엇이 잘못되었는가?(진단)
3. "세상"과 관련된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인가?(대안)

둘째, 기독교세계관 교육의 목표는 '신앙과 삶을 연결하기'(spirituality)이다.

이것은 일상에서 경험하는 문제들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반응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노력은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할 경건의 삶이며 생활영성이라 부르는 것이다.

대개의 경우 다음세대를 위한 신앙훈련이라고 하면 예배를 드리고 찬양집회에 참여하게 하며 성경을 암송하게 하고 개인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훈련하며 수련회에 참여케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아이들의 신앙적 기반이 다져지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아이들을 위한 신앙훈련은 앞으로도 더 체계적이고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신앙과

삶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신앙은 있지만 그것이 자신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 여전히 삶의 문제로 고민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 그것은 성경적 원리가 아닌 세속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신앙 따로, 삶 따로'의 모습을 극복하는 것이 기독교세계관 운동의 목표라면, 그것은 동시에 기독교세계관 교육의 중요한 목표이기도 하다. 아이들이 겪고 있는 삶의 문제들에 대해 기독교적 관점을 제시하고 그 지침대로 살아가도록 돕는 교육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요즘 십대들의 가장 큰 고민인 게임 및 음란물 중독 문제를 기독교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왜 문제인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변화하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십대들의 주요 관심사인 친구, 이성교제, 공부, 성(sex), 돈, 시간 등 기독교세계관으로 이해하고 반응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셋째, 기독교세계관 교육의 목표는 '문화를 분별하기'(culture)이다.

이것은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문화, 특히 대중문화의 기반이 되는 세계관을 분석하고 기독교세계관으로 비판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관이 문화에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문화 또한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계관에 영향을 미친다. 요즘 아이들은 특히 대중문화를 통해 세계관을 제시받고 도전받는다.

상대주의와 다원주의는 오늘날 문화 속에 흐르는 주요 세계관이다. 아이들이 이러한 세계관을 직접 교육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말과 행동에서 이미 영향을 받고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특히 미디어는 이것을 더 강화시키고 있다.

복음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자신의 관심사나 재미있는 것에만 반응을 보이는 것, 좋은 말해도 지루해 하거나 심지어 잔소리로 여기는 것, 동성애를 죄로 여기기보다 일종의 라이프스타일로 보는 것, 자신

의 이미지를 위해 브랜드에 목숨을 거는 것 등은 오늘날의 문화와 그 속에 자리잡고 있는 세계관에 영향을 받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반증한다.

이처럼 아이들은 대중문화를 즐기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 패턴에 익숙해지고 그 패턴대로 살아간다. 따라서 그 패턴을 본받지 않도록(롬 12:2) 대중문화 속에 흐르는 세계관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나아가 기독교세계관을 통해 그 안에 존재하는 부분적 진리는 무엇이며, 기독교세계관과그것은 어떻게 다르며, 그 세계관과 그것이 낳는 열매의 문제점과 한계는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비판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동성애, 환생, 낙태, 인간복제, UFO, K-pop 열풍, 쇼핑중독(shopaholic) 등의 문화적 이슈들이 어떤 세계관과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기독교세계관으로 볼 때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독교세계관의 핵심원리 뿐만 아니라 문화적 이슈들에 영향을 끼치는 타세계관의 핵심원리를 이해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여기서 타 세계관은 모더

니즘, 포스트모더니즘, 뉴에이지와 같은 시대정신과 샤머니즘, 불교, 유교와 같은 전통 종교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문화를 분별하는 기독교세계관 교육은 문화를 해석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기독교세계관을 반영하는 문화 활동 내지 문화 변혁의 사명으로 도전하는 과정도 포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세계관 교육의 목표는 '기독교세계관으로 생각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Discipleship)이다.

진정한 제자란 스승처럼 생각하고 스승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기독교세계관 교육은 교회와 개인의 신앙 영역에서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특별히 자신의 직업 현장에서도 변함없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제자가 되는 것을 도전하고 가이드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목적, 다시 말해 부르심이 있음을 알게 하고 그것이 목회자나 선교사는 물론, 다양한 전문분야와 관련된 것일 수도 있음을 가르쳐야 한다. 이런 점에서 모든 소명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며 거룩한 것임을 인식하도록 하는 기독교적 소명관과 직업관 교육도 필요하다.



이러한 소명과 직업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을 토대로 자신을 향한 구체적인 부르심을 찾고 그 속에서 기독교세계관을 반영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사회를 구성하는 주요 영역들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치관, 경제관, 과학관, 교육관 등 각 영역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을 정리하면서 각 영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타 세계관들이 각각의 영역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이러한 과정은 자신을 향한 부르심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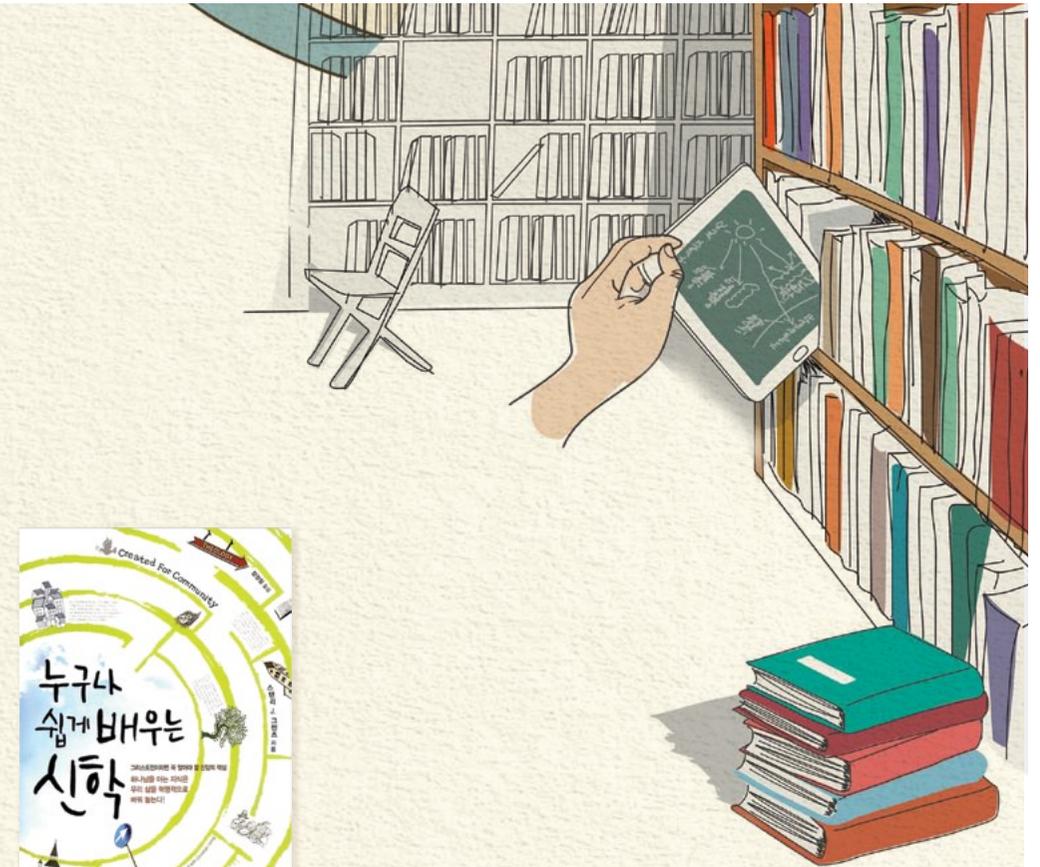
요컨대, 다음세대를 위한 기독교세계관 교육을 통해 기대하는 것은 다음세대가 기독교적 사고를 지닌 그리스도인이 되어 일상 속에서도 기독교세계관으로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문화 속에 자리 잡은 타세계관을 분별하고 기독교세계관으로 비판할 뿐만 아니라 문화를 변혁하는 사명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끝으로 자신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제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기독교세계관 교육의 목표이며 이를 달성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다음세대를 위한 기독교세계관의 교육내용이다.

다음세대를 위한 3년 6학기 기독교세계관 교육과정(안)

	교육 목표	교육 내용
1학기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기 (worldview)	1.1 기독교세계관 1.2 기독교적 사고훈련
2학기	신앙과 삶을 연결하기 (spirituality)	2.1 기독교적 영성관 2.2 기독교세계관과 삶(친구, 이성교제, 공부, 게임, 성(sex), 음란물, 돈, 시간 등)
3학기	문화를 분별하기 1 (culture)	3.1 기독교적 문화관 3.2 타세계관(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뉴에이지 등) 3.3 종교(사머니즘, 불교, 유교 등)
4학기	문화를 분별하기 2 (culture)	4.1 기독교세계관과 문화이슈(동성애, 환생, 낙태, 인간복제, UFO, K-pop 열풍, 쇼 핑크독 등)
5학기	기독교세계관으로 생각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1 (discipleship)	5.1 기독교적 소명관 & 직업관 5.2 기독교세계관과 인문영역 - 문학, 예술, 경제, 사회, 가정 등
6학기	기독교세계관으로 생각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2 (discipleship)	6.1 기독교세계관과 자연영역 - 과학과 기술, 환경, 창조와 진화 등 6.2 소명을 발견하고 준비하기



유경상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산하 청소년세계관교육기관인 크리스천생각센터(CHRISTIAN THINKING CENTER) 대표로 가정과 교회와 학교에 기독교세계관 교육프로그램과 교재를 제공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학부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VIEW(벤투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에서 기독교세계관을 전공했고, 백석대학교에서 기독교철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일산에 있는 센터에서 어린이·청소년 세계관아카데미를, 거룩한빛광성교회에서 어린이세계관학교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세아연합신학교에서 기독교세계관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스탠리 그렌츠 저 | 장경철 역 | CUP

스탠리 그렌츠의 《누구나 쉽게 배우는 신학》을 읽고

윤성현 목사(고신대 기독교윤리학 박사과정)

오늘날 한국교회에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에 대한 삶의 태도를 염려하며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져 가고 있다. 한국교회의 주류적 흐름을 차지하는 복음주의 기독교 진영에는 내세중심적이고 개인경건주의적인 성숙 이원론적 신앙이 여전히 일부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오직

성공과 번영의 현세적 행복만을 추구하는 기복주의적 신앙으로 자리를 옮겨 삶이 결여된 값싼 복음을 열심히 세일즈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사실 이런 파행적인 모습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긴지 오래다. 교회는 세속화의 일로에 있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삶의 행태는 이 땅에서나 내세에서나 오직 이기적인 행복과 안녕을 위한 것이 다반사다.

이런 가운데 1980년대와 90년대를 풍미했던 신칼빈주의적 기독교세계관 운동이 퇴조하는 가운데 먼저 등장한 것은 존 하워드 요더(J. H. Yoder)나 스탠리 하우어워즈(S. Hauwerwas)로 대표되는 아나뱃티스트적 교회론에 입각한 새로운 기독교 대안운동

의 도전이다. 아나뱃티스트적 교회론적 대안운동은 공공성의 영역보다는 교회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의 부재에 대한 대안적 차원에서 비롯되었다. 이 운동은 교회의 진정한 교회됨을 회복함으로써 교회와 세상과의 급격한 대조를 통해 근본적이고 급진적인 저항을 실천하고자 하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또 한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안적 움직임은 공공성의 영역에서 나타났다. 세상에 대해 배타적인 성숙 이원론적 신앙을 극복하기 위하여 출현한 공공신학은 기독교 신앙이 교회 중심성을 벗어나 사회의 공적 영역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공성의 회복을 강조하였다. 맥스 스택하우스(M. L. Stackhouse)로 대표되는 이 흐름은 요더 중심의 교회론적 대안운동과는 정반대의 접근으로 과거 신칼빈주의적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보여주었던 세상 변혁을 위한 기독교 신앙과 맥을 같이한다.

소개하고자 하는 스탠리 그렌츠의 <누구나 쉽게 배우는 신학>은 이러한 한국적 상황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렌츠가 제시하는 신학은 바로 요더의 교회론적 대안운동과 스택하우스의 공공신학의 총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렌츠는 성경이 제시하는 핵심 메시지를 공동체라는 개념에서 찾는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공동체에 있다고 생각한다. “화해된 백성이 하나님, 이웃,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창조물과 사귀며 누리며 사는” 공동체는 하나님 활동의 궁극적 목적이다. 그렌츠의 공동체는 하우어워즈의 교회됨의 회복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과 화해된 백성, 곧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회복과 아울러 교회 밖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공동체를 동시에 꿈꾼다. 그가 말하는 공동체는 전 우주적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공동체의 핵심이지만 동시에 사회 속에 침투하는 공동체이다. 이렇게 하여 스택하우스의 공공성의 회복을 위한 신학은 그렌츠의 공동체 신학 속에 고스란히 녹아든다. 세상 속에서 이웃과 함께 하는 공동체, 자연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공동체의 모습에서 그는 우주적 공동체의 이상을 발견한다.

무엇보다 그는 성경적인 삶의 궁극적 모델과 표준을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찾는다. 삼위일체 하나님, 곧 성부 성자 성령의 사회적 삼위일체는 공동체의 원형이시다. 사랑으로 진정한 사회적 공동체를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모든 창조물과의 사귀를 이루는 공동체의 중심에 두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사람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웃과 자연을 위해 봉사한다. 이러한 공동체적 이상을 상실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 공동체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오셨다. 성령은 공동체의 이상을 완성하기 위하여 교회 가운데 역사하며 교회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현존을 반영하며 살도록 촉구한다. 그리고 마침내는 영원 속에 진정한 공동체가 완성될 것이다.



무엇보다 그렌츠의 신학은 세계관으로서의 신학이다. 그에게 있어 신학은 더 이상 상아탑 속에서 특정한 신학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고고한 지적 유희가 아니다. 신학은 신앙과 관련되며 삶과 직결된다. 따라서 그가 말하는 신학자는 더 이상 학문적 능력을 갖춘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과감하게 모든 사람들이 신학자라고 말한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이나 세상에 대해 기본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삶은 바로 그러한 세계관에 기초해서 영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그렌츠에게 신학은 바로 세계관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세계관으로서의 신학은 우리의 신앙을 강화하며 믿음을 견고하게 하며 우리의 삶에 방향을 제시해 준다. 그런 의미에서 신학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걸어야 할 제자도와 직결된다.

그렌츠는 제자도의 지적 차원을 의미하는 세계관으로서의 신학은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신학과 신앙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하지만 그는 신학과 신앙의 차이점을 구분했다. 신학은 세계관과 마찬가지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지적인 차원에서의 탐구인 반면,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직접적이며 인격적인 응답”이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그의 강조를 발견한다. “신학은 신앙의 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신학을 하는 목적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지적인 탐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더 깊은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나아가도록 하는데 있다. 그래서 신학함에 있어서 그가 가장 경계한 것은 바로 신학으로 신앙을 대체하려는 유혹이었다. 신학이란 신앙과 삶을 연결시키는 실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신학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신학은 반드시 참된 경건과 순종하는 제자도로 나아가야 한다.

자, 그럼 이 책이 말하는 내용을 살펴보자.

신문을 다루는 1장과 2장에서 그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묘사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의 공동체 신학의 중심 개념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신학은 다분히 신문적이다. 그가 강조하는 공동체 신학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성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의 신문은 철저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성에 포커스를 맞춘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영원한 역동적 관계 안에서 함께 연합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하나로 묶어주는 끈은 바로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매개를 통하여 철저하게 사회적 공동체를 이루고 계신다.

인간론을 다루는 3장과 4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 얘기한다. 인간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공동으로 공유되는 실재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사귀 속에서 살 때 비로소 완전해진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성에서 찾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은 사귀를 위한 존재다. 하나님과 동료 인간과 자연과의 사귀를 통하여 하나님을 반사하며 살아간다. 그런 인간이 범접함으로 공동체를 이루는데 실패했다. 죄는 하나님의 형상, 곧 공동체가 되는데 실패한 것을 가리킨다. 이제 범접한 인간은 하나님과, 동료 인간과, 그리고 자연과의 단절과 분리 가운데 놓여졌다.

기독교론을 다루는 5장과 6장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며 동시에 참된 인간의 전형으로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분으로 제시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인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생애를 통하여 성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그리고 자연과의 사귀도 나타났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하여 온 인류로부터 새로운 공동체적 교제를 위하여 자신의 몸인 교회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셨다.

성령론을 다루는 7장과 8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공동체, 곧 교회를 세우는 성령의 사역이 설명된다. 오순절 성령의 부으심은 새로운 공동체를 출범시켰다. 오순절을 전환점으로 성령께서는 이제 공동체 안에 거하신다. 성령께서는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이 위대한 공동체가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신다. 곧 성령은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역의 완성자시다. "완성자로서의 성령의 가장 중요한 활동은 바로 우리 안에 구원의 위대한 일을 완성하시는 것이다." 성령께서는 회개와 신앙으로 회심케 하심으로 우리를 신앙 공동체 속으로 편입시키신다. 그리하여 우리는 마침내 공동체적 삶으로 나아간다.

교회론을 다루는 9장과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최종 목적인 공동체의 현재적 현현인 교회, 곧 '개척자 공동체'가 언급된다.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현재 속에서 인정하는 공동체로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 교회의 사명은 한 개인의 구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회복에 기초하여 이웃, 창조세계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현존을 누리며 사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교회는 먼저 진정한 사귀이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야만 한다. 나아가 공동체의 한계를 넘어 세상 속에서의 사명을 감당해야한다. 하나님과의 화해는 공동체 안과 밖에서 구체적인 사회적 관계를 통해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다.

종말론을 다루는 11장과 12장에서 그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로서의 영원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그려낸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하여 "현 창조 세계를 새로운 피조물의 영광스럽고 영원한 공동체로 변화시킬 것이다." 심판을 통하여 영원한 공동체에 들어갈 자들과 그렇지 못할 자들이 분리된다. "궁극적으로 영원한 공동체는 우리가 지상에서 누리고 있는 이 사귀의 갱신이며 현재 나누고 있는 이 공동체의 철저한 완성이다."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현존이 충만하게 드러날 영원한 공동체는 새로워진 창조세계, 곧 새로워진 우주 전체를 가리킨다. 완성된 창조세계는 첫 창조세계를 그대로 포함한다. 인간문화 중 최고의 것들도 이 세계에 들어간다. "그것은 완전한 파괴가 아닌 갱신과 해방이다." 우리는 완성된 창조세계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완전하고도 충만한 사귀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책에서 그렌츠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공동체 신학을 통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강조다. 그는 교회를 통하여, 나아가 세상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현존을 고백하며 살아야할 그리스도인의 삶을 역설한다. 한마디로 그가 말하는 신학은 신앙이요 삶이다. 신앙으로 삶으로 고백되지 않는 신학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텅 빈 조개껍질 같은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현실에서 그의 세계관과 공동체적 삶으로서의 신학의 강조는 오늘날 우리 모두가 깊이 새겨야할 소중한 메시지에 틀림이 없다. 공동체적 삶을 회복하라!



윤성현 목사 개혁신앙 아카데미 총무로 사역 중이며, 합동신학대학원(M. Div.)과 고려신학대학원(기독교 윤리학, S.T.M)을 졸업하고 지금은 고신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기독교윤리학 박사과정중에 있다.

2013

제3차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신규회원 초청의 날

2013년을 맞이하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에서는 기독교세계관운동의 확산을 위하여 홀수 달 셋째 주 목요일마다 회원님들의 자리를 마련하려 합니다. 그동안 기독교세계관을 도서나 <월드뷰>로만 접하신 분들의 갈증을 풀어 드리고자, 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셨던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셔서 준비된 강의들으시고 같은 뜻, 같은 궁금증으로 고민하시던 분들과 함께 귀한 나눔의 시간을 갖게 되길 기대합니다.

일시 **2013년 5월 31일(금) 저녁 7시**

장소 서울시 용산사우구(용산역 하차, 홈페이지 참고)

*추후 신청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제 청년, 인생 최고의 순간

강사 김기현 목사(공격적책임기), <예배최고의 가치>, <하박국 고통을 노래하다> 등 저자

사회 최태연 교수(백석대 교수,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

참가비 1만원(당일접수)/ 신청 메일 info@worldview.or.kr/ 문의 02-754-8004/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교회 청년부, 단체 신청받습니다. (전화문의)

2013년 2차 신규회원 초청의 날 후기 :)

지난 3월 14일(목) 저녁 7시! 용산 사우구에서 신규회원 초청의 날 두번째 모임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세계관과 교육에 관심이 많은 회원님들이 찾아주셨어요.



"기독교세계관과 기독교교사"를 주제로 귀한 강의를 들려주신 김의원 부이사장님(백석대 부총장) "기독교세계관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모임에서 사회를 맡아주신 최태연 교수님. 따뜻한 진행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UP!



평소에 기독교세계관에 관심이 많았던 회원님들은 금세 강의에 푹~빠져셨습니다. 김의원 부이사장님, 귀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쑥스럽지만 즐거운 자기소개와 질의응답 시간~! 나누다보니 어느덧 시간이 훌쩍 가버렸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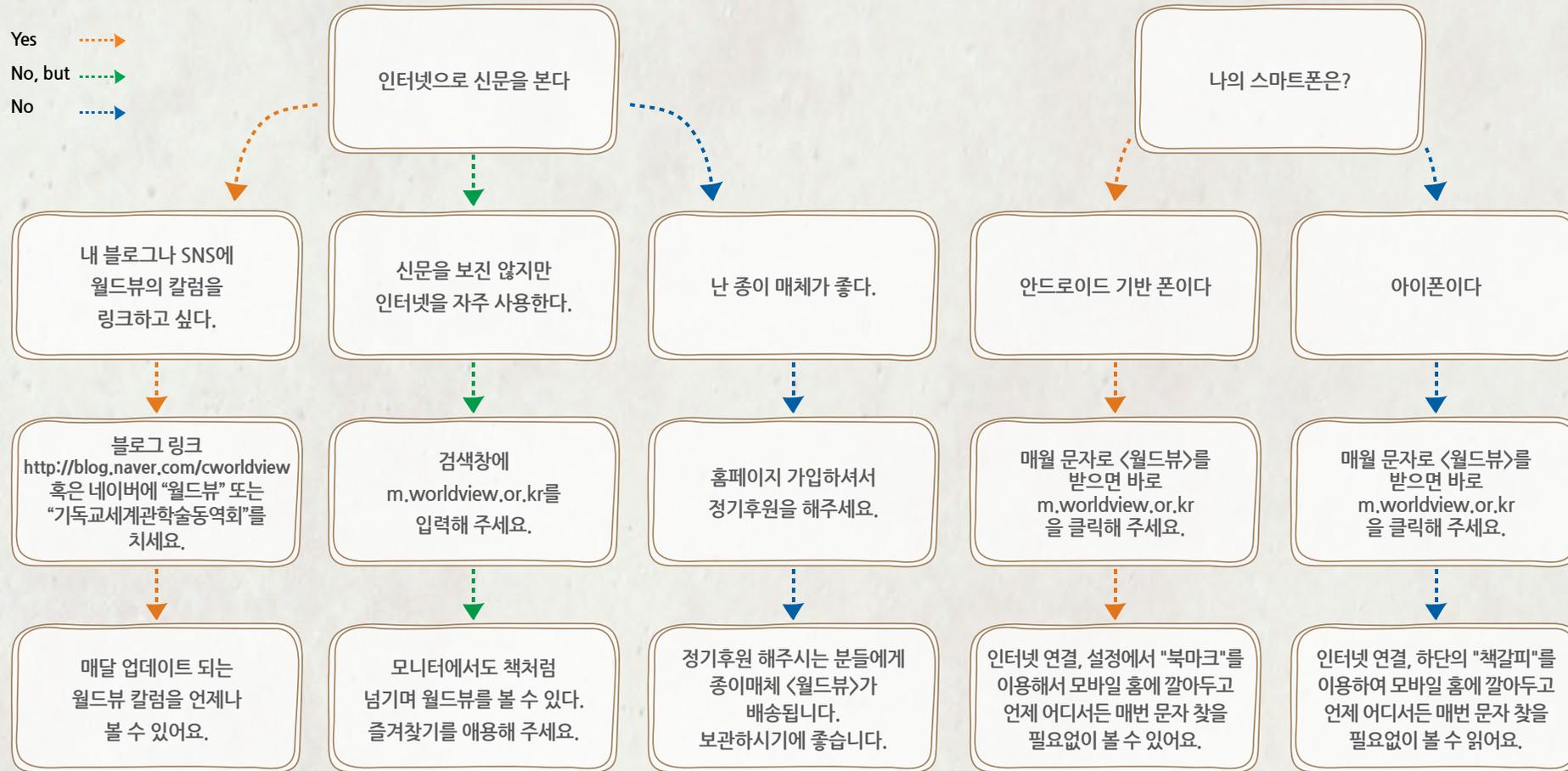


헤어지기 아쉽지만 모임을 마무리하며 단체 사진 촬영! 소명의 자리에서 분투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월드뷰를 더욱 스마트하게 애용하는 법!

당신에게 맞는 월드뷰 사용법!

매번 문자를 열어 월드뷰를 볼 필요가 없어요!



※ 핸드폰 모바일홈에 깔아두면 자동으로 매달 업데이트 됩니다.

이 모든 혜택은 홈페이지에 정확히 모바일 번호를 기입하신 분들에게만 해당합니다. 홈페이지(온라인)회원 가입시 <월드뷰>를 메일로, 매월 마지막 날엔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월드뷰>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꾸준히 제작되어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후원하여 주십시오.

월드뷰를 더욱 스마트하게 애용하는 법!

1. 스마트폰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2. 공동체와 함께 읽기

- 1) 카카오톡, 라인, 미투데이 등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공유가능
※월드뷰 문자를 널리널리 나눠주세요. 함께, 더불어 갑시다!
- 2) 서평도서 탐독하기 :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소개하는 탐독 가이드. 1년이면 무려 12권 탐독!
※서평과 함께 책을 읽음으로 바른 믿음의 안목을 제시합니다.

3. 교사들을 위한, 교사에 의한, 교사의 기독교세계관학교

- 1) 주일학교 멘토링 : 기독교세계관이 쉽다! 명쾌하다!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기독교세계관 주일학교 교사 멘토링!
※강의가 필요하시다면? 기독교세계관과 관련된 최고의 강좌를 홈페이지에서 만나세요.
- 2) 세상을 바꾸는 주일학교교사 필독서 : 주일학교 교사의 삶과 역량을 키우는 힘!
※공동체와 함께 나눠요. 교사가 교사에게 권합니다.
- 3) HOW.TO. 주일학교 : 현장에서 들리는 생생한 소리, 지금의 문화 직시하기
※지금의 문화, 현장의 온도를 직접 체험하고 문제와 대안을 제시합니다.

세상속의 그리스도인, 당신의 바른 관점을 위해 "월드뷰의 세상바로보기"가 함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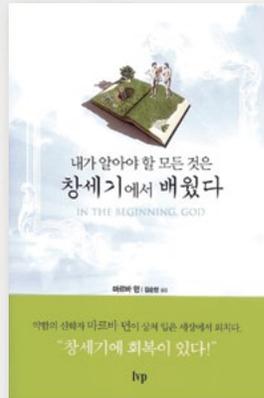
5월의 기독교세계관 세미나

주제 : 청년! 기독교세계관
강사 : 김기현 목사(예배, 인생최고의 가치) 저자, 최태연 교수(백석대)
일시 : 2013년 5월 31일(금) 저녁 7시
장소 : 용산 사무국(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신청 및 접수 : 5월 10일까지 메일(info@worldview.or.kr)로 신청
(신청시 이름/ 핸드폰/ 소속/ 직위 기재요망)
참가비 : 만원
문의 : 사무국(02-754-8004)

※ 다양한 세미나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창세기에서 배웠다

인영혁 (총신대 신학대학원 교수)



마르바 던 저 | 김순현 역 | IVP

먼저 역자의 모험심에 대해 미리 밝혀두고 싶다. 저자인 마르바 던은 한글판과 유사한 제목을 포기하고 그냥 '태초에 하나님께서'(In the Beginning, God)라는 제목을 취하였다. 이것은 하나님 주체를 선명히 살리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한글 역자는 저자가 포기한 제목을 도로 살려냈다. 그것은 할 만한 도박이었다. 어차피 내용 중 하나님 주체라는 저자의 의도는 드러나게 되어 있으므로, 창세기의 의미-더 자세하게는 창세기 1-3장이 가진 중대한 의미-를 강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저자와 역자의 이 팽팽한 줄다리기는 결국 저자의 손을 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지만, 역자의 주체성이 살아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글판 책이 겹치기로 생명을 얻은 것 같아서, 일말의 생기가 감돈다.

필자는 젊은 시절 호세 미란다의 「마르크스와 성서」(일월서각, 1991)를 읽고 크게 감동했다. 한 가지 주제에 성경 전체를 끌어 넣는 집중력이 대단했다. 특별히 로마서를 가지고 마르크스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일견 통쾌했다. 마르바 던은 원래가 그렇게 통렬한 글을 쓰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조용한 침입자'라고 할까? 그녀는 오히려 창세기 1-3장을 거쳐가는 가운데 모든 신학적 주제를 걸고 넘어지는 조용한 집중력을 보여준다. 스타일은 정반대인데 집중력은 같은 느낌이다. 바로 그런 면에서 창세기 1-3장은 적절하다. 어차피 창조는 세계를 아우르는 것이고, 기독교 기준 세계관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원래 신학 전반을 몰고 올 가능성으로 충분하다. 물론 우리는 마르바 던으로 인하여 그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지만, 느닷없는 일은 아닌 것이다. 그래야 한다는 것이 오랜 신학 역사의 실제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에서 역시 역자보다 저자가 옳았던 것 같다. 깊은 의도로 말하자면 역자가 취한 제목은 신학 일반을 되풀이한 것이고, 저자의 제목은 그런 신학 일반에 하나님 주체라는 방향성을 드러내주기 때문이다.

필자는 마르바 던에게서 일종의 아프리카 스토리텔링 주술사 같은 인상을 받았다. 마르바 던은 생각보다 유명한 학자이다. 유튜브에 그녀의 강연이 돌아다닐 정도로 대중적 인지도도 있고, 책 구석구석에서 드러나는 그대로 신학적 수준도 대단하다. 그런데 그런 신학적 수준을 충분히 어필하는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신학적 탁월성을 가리키며 창세기 1-3장을 원래 창세기를 이야기하던 사람의 느낌으로 돌아가서 읊어내고 있다. 이것이 마르바 던이 이 책에서 가장 훌륭하게 성공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아는 것 많은 먹물들이 먹물빛 다 제하고 진짜 소담한 이야기를 해낸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던은 바로 그것을 해냈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분야를 막론하고 꼭 배워야 할 기독교인 글쓰기의 모범이다.

이 책을 읽는 내내 집중하기 어렵다는 느낌을 받았다. 먼저 전체 18장의 독립성이 다소 모호해 보여서 개개의 장이 가진 정체성을 밝히려도 덤벼들어 보면, 무엇인지 주변의 장들과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만으로는 또렷이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다. 손에 들어오는 조그마한 크기에 기껏 240페이지 정도의 책이고 이야기 같아서 가볍게 여기다가는 혼란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게 된다. 다 읽으려면 참 여러 번 다시 음미해야 하는 책이다. 그래서 솔직히 책을 읽으면서 좀 답답했다. 좀 집중이 되도록 쓸 수 없었나? 그리고 보면 이 책은 가벼운 스토리텔링 같아 보이면서도 다른 여러 신학 분야의 지식이나 인문학,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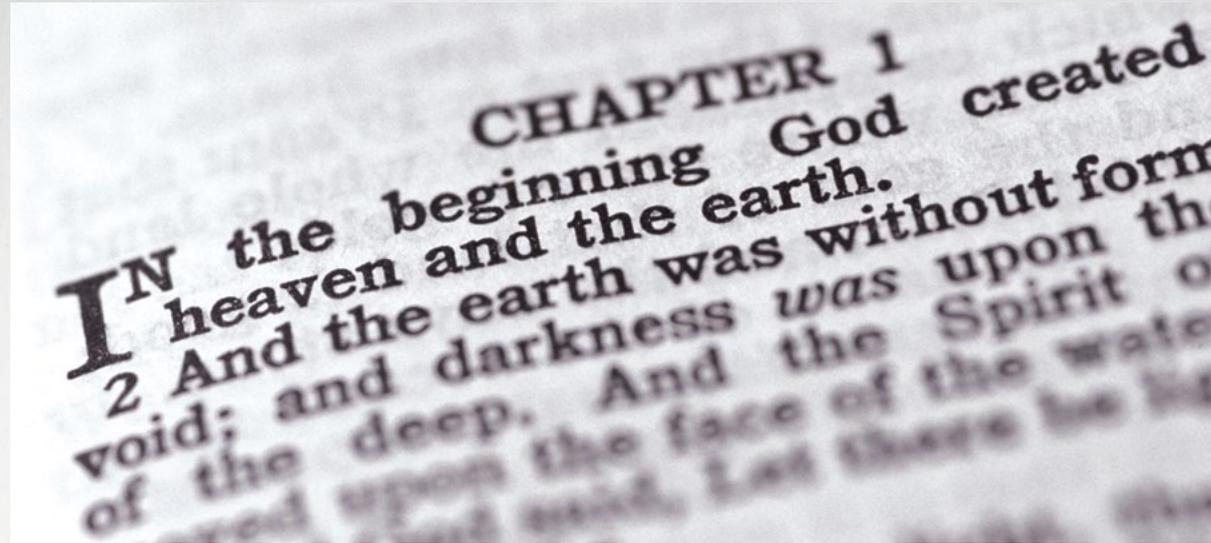
회과학의 선지식이 필요하다. 던은 신학으로 말하자면 구약 신학에 상당한 깊이를 가지고 있고, 인문학으로 말하자면 결코 보통 사람의 상식을 벗어나는 신학적 담론 같은 것을 펼치지 않는다. 인문학적 상식에 매우 견고한 학자라는 말이다. 딱히 사회과학이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생태에 대한 던의 지식과 관심은 상당한 수준이다. 말하자면 스토리텔링이라는 기본에 구약신학과 인문학적 감각 그리고 삶으로서의 생태적 관심이 어우러진 만만치 않은 책이다.

아차! 그리고보니 저 스토리텔링이 실은 문제의 핵심이며, 던이 뛰어난 영성신학자로 불리는 이유이다. 원래 영성신학은 '모든 종류의 하나님 경험의 진술'을 말한다. 그러니까 던은 여러 가지 학문 분야와 자신의 감성을 동원하여 자신의 경험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사실 유진 피터슨의 책들을 보고 찬탄하곤 하였다. 영성신학자가 한 권 한 권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자신의 경험과 다른 사람들의 경험들을 담아내는 방식이 여간 해서는 흉내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던이 또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책에는 말하자면 창세기 저자의 하나님 경험도 드러나고, 그 성경을 읽는 독자들의 경험도 드러나고, 그것을 바라보며 한 마디 덧붙이는 던의 경험도 드러난다. 던은 그렇게 자신의 영성신학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스토리텔링의 관점에서 내용 이야기를 하겠다. 던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창세기 1-3장의 쟁점이라고 한다. 사실 모세5경 중 레위기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예전서이다. 그러나 창세기가 예배를 말한다는 것은 예전서라는 말이 아니다. 세계는 하나님의 흔적으로 충만하고, 그 흔적의 본연을 따라 누군가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절로 예배가 되고 만다는 의미에서 창세기 1-3장은 예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던은 창세기 세 장에서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 주체, 하나님 주어를 절절하게 이야기한다. 이 노래는 하나님의 흔적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자체로서 예배이다. 마치 우리가 법의 법다움을 따라가다가 자연법을 이야기하듯 예배의 그 원래적 모습이 여기 보이는 것이다. 즉, 저자는 창세기 1-3장에서 자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필자는 창세기 1-3장이 예배라고 하는 말에서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을 모두 읽을 수 있었다. 매우 당연한 것을 던이 잘 이야기해주었고, 그래서 그것은 당연하면서도 예배학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진술이다. 레위기에서 예배 방법의 골격을 발견한다면, 창세기 1-3장에서는 하나님의 존재와 함께 예배하는 인간의 근본 정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1부에서 이렇게 운을 댄 다음 2부가 꽤 길게 이어지는데, 그것은 7일간의 창조가 실로 이런 저런 방법으로 운을 맞춘 예배 이야기라는 것이다. 이것은 1부에서 이미 이야기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2부가 단지 1부의 입증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저자는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자신이 느끼는 세계를 맛깔스럽게 표현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자가 가지고 있는 정서적 세계관의 유려한 전개이다. 그 또한 예배이며 깊은 영성이다. 저자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많은 내용들 가운데서도 안식일의 강조는 특히 더 인상 깊었다. '우리는 정말 뭘 하느냐고 이렇게 바쁘게' 하면서 그런 인상에 깊이 매료된다. 물론 저자의 글말이 놀라운 것이지만, 기실은 저자의 글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흠뻑 뿌려 놓으신 흔적이 놀라운 것이다. 예배학자들은 이야기한다. 하나님이 영원에서 시간 세계를 이끌어 내신 다음 여전히 영원의 질서 가운데 계시면서도 흔쾌히 사람들의 시간 질서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 가운데 쉬셨다고. 안식일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동행이라는 점이 놀랍다.



던은 4부로 구성된 각 부분이 딱 떨어지게 내용을 나누어 놓지는 않았다. 그러면서도 2부에서는 창조된 자연세계 자체를 찬탄하고, 3부에서는 그 자연이라는 것이 체계를 이루어 관계 맺는 것에 주목한다. 물론 이것도 인간이 온 세계와 맺는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여기서는 남녀 관계에 깊이 주목함으로써 던의 페미니즘을 선보인다. 예를 들어 가족을 이루기 위해 여자가 집을 떠나 남자의 집에 합치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새로운 깨달음이다. 고대 종교서적이라는 면에서 남성 중심적인 특성들을 여지없이 드러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흔적만은 쉽사리 그런 고대적 진술 방식에 먹혀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던은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잘 드러내 주었고, 이 또한 던의 경험이며 그녀의 영성이다.

4부에 대해서는 좀 더 조직화하고 좀더 상세히 기술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흔적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삶은 딱 들어맞지 않고 빼겨거리는 부분이 있다. 던이 이런 빼겨거림에 대하여 현상 중심의 기술을 한 것은 참 적절하다. 신

학 자체 자체가 창세기인 탓도 있겠지만, 던도 기독교 중심에서 신론 중심으로 옮겨가려는 경향과 유사한 면들을 보여주었다. 칸트는 성부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그리스도 신앙은 다소 미신적이라고 여겼고, 20세기 후반부 영성에 큰 영향을 미쳤던 C.S. 루이스가 얼마간 칸트의 입장에서 기독교를 입증하려고 했다. 우리 시대 신학자들은 자칫 이런 경향을 아무 생각 없이 수용할 수 있다. 필자는 던도 적어도 이 책에서는 그런 경향의 가능성을 비치고 있다는 것을 미리 지적해두고 싶다. 창세기를 다루기 때문에 피할 수는 없었지만 거기서 필요한 것을 다 배웠다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적 구원론이나 그리스도 중심적인 내러티브 같은 것을 어떻게 결부시킬지 고려했더라면 아마 훨씬 더 좋은 책이 되었을 것이다. 물론 그런 면에서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영성신학에서는 늘 제기되는 문제이므로 한 번쯤 이야기해도 될 듯하다.

학을 우겨 넣지 않고, 오히려 일어나 있는 알력에 대하여 신학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다가가려고 한 것이 필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어긋나기도 하는 인간이 혹은 기독교인이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그리고 또 치유되거나 더듬거리며 한 걸음씩 갈 수 있는 거구나!'

필자는 원래 박사 과정에서 영성신학을 연구했다. 개신교만의 기본 영성신학 틀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조그만 주장이었다. 신비와 금욕 및 수련을 핵으로 하는 정교나 가톨릭의 영성과 달리 개혁가들이 보여준 믿음과 일상적 삶의 경험을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저들의 영성신학은 걸핏하면 그리스도를 뛰어넘어 신비적이고 신적인 존재로서의 성부 하나님께 닿으려는 경향이 있는데, 필자는 읽는 내내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보았다. 다루는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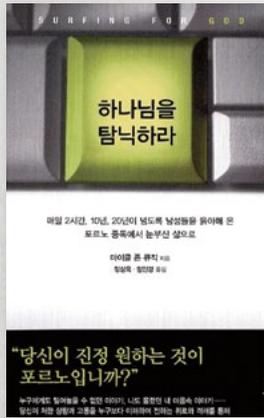
산문이지만 신앙적 운문의 느낌을 주는 책으로, 문학적으로 창세기 1-3장과 닮았다. 창세기 1-3장을 이야기하면서 그 목적과 내용을 잘 파악하고 그 부분의 문학적성을 자신의 해설에 실현시켜낸 아름다운 책이다. 좀 더 시간을 내어 아금아금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얻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안명혁 총신대학교 서울대학교 철학과,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및 일반대학원(Ph.D.)에서 공부하였다. 현재 예본교회에서 담임으로 섬기고 있으며,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실천신학 강의전담교수이자 한국코메니우스연구소 부소장이다.

인생의 본질이며 모든 문제의 근원적 해결인 “하나님을 기뻐함”

이승구 (합동신학대학원대 교수)



마이클 존 큐직 저 | 정성욱, 정인경 역 | 흥성사



존 파이버 저 | 박대영 역 | 생명의말씀사

각각 다른 목적으로, 다른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책들의 요점이 비슷한 것은 그 주제가 가장 중요하고 보편적 요구를 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여러 가지 것들이 현신을 요구하는 이 시대에 적어도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이 세상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데도 세상이 바뀌지 않는 것은 우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사실 이 두 권의 책은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잘 반영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하기 위해 기록된 책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이 두 책을 읽지

않아도 된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이 두 저자가 하려는 일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 의미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것에 있다. 그래서 이 성경적 강조가 우리시대에 중요한 것이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이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창조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사태가 벌어졌고 그것이 바로 죄이다. 그러므로 모든 죄는 결국 그 본질인 “하나님을 기뻐함”을 저버린 것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일 뿐 아니라 모든 문제의 근

본적 해결책이 된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데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본질이며,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인 “하나님을 기뻐함”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잘 파악해야 한다.

두 저자는 각기 다른 상황에서 “창녀촌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예외 없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다”는 체스터톤(G. K. Chesterton)의 말을 인용한다. 가장 큰 죄악은 자신이 무엇인가 결여되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며, 자신은 깨닫지 못하더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그 안에 있음을 보이는 것이라고 한다.

파이퍼의 “하나님 기뻐함”

베들레헴 침례교회의 존 파이버 목사는 “하나님을 갈망함”(Desiring God)이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한다. 그는 베들레헴 침례교회를 개척한 지 6년째이자 40세 되던 해인 1986년에 이 책의 초판을 썼는데, 1983년 베들레헴 침례교회에서 행한 설교들을 기본으로 구성했다고 한다(『하나님을 기뻐하라』, 14). 그는 또한 2003년에 개정판을 내렸는데, 17년 동안 이 책의 내용을 시험하고 비전을 적용하면서 자신이 말하려던 바가 참되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고 한다. 즉,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느 8:10)는 말씀이 결정적일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철저히 느끼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다(『하나님을 기뻐하라』, 17).

파이퍼는 17세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작성자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총체적으로 요약하면서 인생의 제일된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즐거는]” 것이라고 고백했던 바를 따르면서, 이 둘은 연관되어 있음을 확신하였

다. 그는 이것을 조금 손질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by)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파이버는 이것을 “기독교 희락주의”(Christian hedonism)라고 명명하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¹⁾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인정하는 것,²⁾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³⁾ 하나님을 즐기는 것 등으로 표현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연관시키기도 한다.⁴⁾ 또 때로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나⁵⁾ 하나님을 향한 삶이라고 좀 더 일반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⁶⁾ 그러나 그의 강조점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데 있다. 그는 이러한 삶의 보편적 사명을 언급하면서 민족들로 즐거워하게 하라는 선교에 대한 책을 쓰기도 했다.⁷⁾ 개정증보판에서는 고난에 관한 장(제10장: 기독교 희락주의의 희생)을 추가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강조하였는데, 전 장에서도 “특별히 오늘날 요구되는 것은 전시의 생활양식”(wartime lifestyle)이라는 것을 강조한 바 있다(『하나님을 기뻐하라』, 259). 즉,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위해서는 검소하게 살면서 선한 사업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이 내용을 어떤 용어로 표현하든지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런데도 파이버는 기독교 희락주의라는 용어에 애착을 느끼면서 이를 변호하길 즐겨한다.⁸⁾

1) 그것이 이 책의 원제목이고(Desiring God, [Oregon: Multnomah Books, 2003]). 그의 사역 전체의 모토이다. Cf. Desiring God Ministries.
2) John Piper, *The Supremacy of God* (Grand Rapids: Baker, 1990).
3) John Piper, *A Hunger for God* (Wheaton, Ill.: Crossway, 1997).
4) John Piper, *The Pleasure of God: Meditations of God's Delight in Being God* (Sisters, Oregon: Multnomah Books, 2000).
5) John Piper, *The Purifying Power of Living by Faith in Future Grace* (Sisters, Oregon: Multnomah Books, 1996).
6) John Piper, *A God-ward Life*, 2 vols. (Sisters, Oregon: Multnomah Books, 1997, 1999).
7) John Piper, *Let the Nations be God: The Supremacy of God in Mission*, 2nd revised and expanded edition (Grand Rapids: Baker, 2003).
8) 이것이 머리말과 부록 2: “왜 기독교 희락주의라고 부르는가”(426-32)라는 내용을 형성한다.



이것이 파이퍼의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다. 그는 복음 전도와 자신이 말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하여 그에게 충분히 동의하면서도 이 용어 사용에 동의하지 않을 많은 사람들을⁹⁾ 놓칠 수도 있는 것이다. 한편 파이퍼는 기독교 회락주의라는 용어를 옹호하기 위해 “기독교 회락주의는 일반적인 도덕적 정당화 이론이 아니다”, “내가 말하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하나님을 기뻐하라』, 29)와 같이 계속해서 부정의 형식으로 그 속성을 설명하는데, 이 모든 것은 이 용어를 버리고 단순하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 1문을 그대로 사용하고 강조했으면 피할 수 있는 것이다.

9) 그 대표적인 사람이 “파이퍼는 자신의 회락주의적 목적과 조화시키기 위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의 첫 대답을 바꿀 수도 있다”고 하면서 이 용어에 대해 비판하는 리처드 마우 같은 이이다. Cf. Richard Mow, *The God who Commands* (Notre Dame: Notre Dame Press, 1990), 33, 36.

또한 파이퍼는 가끔 하나님께 어떤 필연성을 부가하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예를 들면 그는 “기쁨은 표현할 때 완전해진다”는 문장을 쓰면서, “우리가 감탄하는 것을 찬양할 수 없다면 우리의 기쁨은 온전하지 못할 것이다”(61)고 하면서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셔야 할 뿐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우리나라는 찬양을 받으셔야 한다”(61)고 말하고 있다. 또 “하나님은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 영원한 기쁨을 추구하는 우리의 노력에 참여하신다”(66)와 같은 표현도 그의 의도가 왜곡될 수 있는 안타까운 표현중 하나이다.

그러나 파이퍼는 현대의 다양한 시도들에 대해 성경적으로 균형 있는 비판을 하면서 정통 기독교를 충실히 현대 사회에 제시하는 대표적인 목회자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며¹⁰⁾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의 영혼은 결국 소멸되고 마는 것이라는 다양한 영혼 소멸설(annihilation theory)을 정당하게 비판하였으며,¹¹⁾ 지옥을 교정 장소라고 보아 한시적인 것으로 여기는 조지 맥도날드의 입장¹²⁾ 바르게 비판하였다.¹³⁾ 또 현대의 다른 경향에 의식적으로 반대하면서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로서의 칭의를 강조하는 정통적 교리를 옹호하는 작업을 하기도 했다.¹⁴⁾

마이클 존 쿠직의 『하나님 서핑』하기

그런가 하면 포르노 중독에 관심을 가지고 ‘영혼의 회복’(Restoring the Soul)이라는 기관을 세워서 섬기고 있는 마이클 존 쿠직 목사님은 『Surfing for God』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을 기뻐할 것을 요청하는 책을 썼다. 우리말 번역본은 포르노와 성에 탐닉하는 것을 극복 한다는 관점에서 『하나님을 탐닉하라』를 제목으로 했는데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저자는 사람들이 포르노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포르노와 성에 중독된다고 보았다. 사실 인간은 더 큰 것을 위해, 승리하도록 계획되었으며, 하나님의 팀에서 뛰도록 선택되었다(37).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게 포르노 같은 것에 중독되는데, 사실 “포르노는 아주 많은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턱 없이 적은 것을 제공할 뿐”(49)이다. 특히 “인격적 관계를 맺지 않고도 성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으며(54), 희생과 고난 없이도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고(55), 영혼과 무관한 열정과 생명을 약속하고(58), 책임 의식과 겸손함이 없이도 영성에게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며(59),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위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약속하나(61) 사실 포르노는 이런 것을 줄 수 없다.

10) John Piper, *The Supremacy of God; idem, The Pleasure of God*, 47-75, 121-55; *The Justification of God* (Grand Rapids: Baker, 1993); <<하나님을 기뻐하라>>. 40.
 11) John Piper, *Let the Nations be God*, 제 4장; Piper, <<하나님을 기뻐하라>>. 72.
 12) Cf. George MacDonald, *Creation in Christ*, ed. Rolland Hein (Wheaton, Ill.: Harold Shaw, 1976), 63-81.
 13) John Piper, <<하나님을 기뻐하라>>. 73. 파이퍼와 같은 입장은 모든 정통주의자들의 입장이기도 하다. 이런 입장에선 또 다른 사람을 하나 언급하자면 J. I. Packer, “Good Pagans and God’s Kingdom,” *Christianity Today* 17 (17 January 1986): 22-25; idem, “The Problem of Eternal Punishment,” in *The J. I. Packer Collection* (Downers Grove, Ill.: IVP, 2000), 210-26을 보라. 또한 이승구, <<전환기의 개혁신학>> (서울: 이레서원, 2008), 25-31, 175-77 등도 보라.
 14) John Piper, *The Justification of God* (Grand Rapids: Baker, 1993); Piper, *The Future of Justification* (Wheaton, Ill.: Crossway, 1997); Piper, *Counted Righteousness in Christ* (Wheaton, Ill.: Crossway, 2002); Piper, <<하나님을 기뻐하라>>. 77.

인간에게는 그보다 더한 갈망이 있는데 이 진정한 갈망에 주목할 때 포르노나 성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였다. 궁극적인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면 포르노나 성 중독 문제는 물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다(특히 187-89 참조).



마이클 존 쿠키의 논의의 문제점

기본적인 접근은 좋으나 일반 심리학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7가지 핵심 갈망-관심, 사랑, 인정, 수용, 만족, 의미, 안전(75)-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또 강박적인 성적 행동과 싸우는 남성들의 모임을 지도하면서 시작할 때마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촛불을 켜고 말하도록 했다는 부분(195)에서 그런 방법론에 집중하게 될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

다. 증독을 일으키는 경로가 약해지고 '다시 생각해봐'라는 경로가 강해질 때 뇌의 재조장이 이루어진다는 논의(243)도 이런 강화이론의 단순한 변용으로 충분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 포르노와 겪는 갈등은 "오랫동안 학습된 반응"으로 뇌는 변할 수 있다(246)는 것에서도 이런 S-R 이론의 변용으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고 행동수정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과연 충분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성경의 가르침에 좀 더 충실했



더라면 더 좋은 책이 되었을 것이다. 또 헨리 나우웬(Henry Nouwen)이나 아빌라의 성 테레사의 『내면적 성』(The Interior Castle),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등을 긍정적으로 인용하거나 소위 '관상 기도'를 권하면서 이러한 천주교 영성 실천

가들의 사상과 실천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기독교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것을 기독교적 가르침과 나란히 소개하는 것은 많은 사람을 심각하게 오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이 세상의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와 가짜 예배를 칭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때에만 우리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는 기본적인 논의에서는 매우 옳으나, 구체적인 상담 과정과 방법에서 좀 더 하나님 중심적, 성경 중심적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모든 상담 이론과 실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래도 성경적인 기독교 상담학자인 래리 크랩 밑에서 인턴으로 있었던 저자답게 우리의 악함과 죄가 문제의 근원이 라는 것을 잘 파악하고 있다. 성경적인 접근과 실천을 도입해야 한다

는 것은 모든 실천적 분야에 주어지는 도전이다. 저자는 물론 우리도 좀 더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하여 진정으로 신앙과 학문과 실천과 삶을 통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승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교수로 총신대학교와 합동신학원,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영국 St. Andrews 대학교 신학부에서 조직신학 전공의 석사 학위(M. Phil.)와 박사 학위(Ph. D.)를 받았다. 합신 교수 외에도 연합 교회의 협동 목사로 말씀을 섬기면서,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 보는 21세기 한국 사회와 교회>, <한국 교회가 나아 갈 길>, <우리 사회 속의 기독교> 등의 기독교세계관 시리즈 책과 <교회란 무엇인가>, <사도신경>, <광장의 신학>, <인간 복제, 그 위험한 도전> 등 사회 문제에 대한 책과 <개혁신학 탐구>, <전환기의 개혁신학> 등 개혁신학 책을 내었다.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2013년 2월28일 마감)

회원후원

2천5백 김민지, 박진호, 3천 구재형, 김성권, 임고은, 정필규, 조성진, 3천5백 가월현, 김경현, 김경희, 김수경, 김은호, 김태우, 김희원, 남지민, 노주하, 생명의강, 영음사, 정경식, 정세열, 진성자, 최원길, 하태실, 한진영, 황보난이, 5천 강지혜, 고은하, 고은하, 구성덕, 권명중, 권지연, 김경식, 김경희, 김기용, 김기현, 김남진, 김대용, 김도희, 김미정, 김병국, 김봉오, 김상욱, 김성민, 김성은, 김성찬, 김영윤, 김영명, 김정심, 김정원, 김정준, 김준, 김철수, 김태윤, 김향아, 김혜창, 김효태, 박기연, 박승룡, 박준모, 박찬규, 박해일, 배기선, 배도환, 범경철, 손세용, 손영경, 손영일, 송동민, 송시삼, 송철호, 신기혁, 신찬웅, 심정하, 안현상, 양영태, 우수민, 유은자, 유정은, 유종열, 윤경숙, 윤종선, 이경미, 이근배, 이노윤, 이덕택, 이명진, 이민화, 이승환, 이원배, 이윤희, 이은미, 이인수, 이진영, 이향숙, 임선재, 임춘택, 임형준, 장현일, 전정진, 전충국, 정수빈, 조인진, 조혜경, 주경식, 지경순, 최광수, 최동희, 최영태, 한배선, 허재일, 홍승기, 7천5백 고상섭, 구준희, 김영숙, 민수진, 백은미, 영암교회, 이상훈, 이은순, 이주희, 천하은, 9천 김창현, 1만 강은정, 강호영, 강효식, 고은남, 고현경, 권민규, 권성아, 권순범, 김경원, 김경희, 김고은, 김광순, 김동우, 김막미, 김성경, 김성민, 김성인, 김성인, 김세령, 김세완, 김세완, 김세중, 김영환, 김영옥, 김영완, 김요한, 김용석, 김우신, 김은덕, 김은수, 김은혜, 김정호, 김종국, 김준호, 김준희, 김진아, 김창현, 김현경, 김형길, 김홍섭, 김효숙, 나동훈, 남서희, 류의근, 류화원, 마민호, 박강국, 박경원, 박광재, 박능안, 박대원, 박두한, 박상규, 박시은, 박영주, 박정욱, 박종원, 박종훈, 박진규, 박창규, 박창우, 박태양, 박현경, 박희주, 배지연, 백경은, 서화진, 소중화, 손현택, 송미정, 송중철, 신상형, 신성자, 신성태, 신현주, 신호기, 안석, 안영혁, 안용준, 양병국, 양행모, 양해원, 엄지은, 오지순, 원호영, 유건호, 유경상, 유영준, 유지형, 유해무, 윤동수, 윤상현, 윤영희, 이경숙, 이계삼, 이관후, 이권철, 이규현, 이길형, 이명동, 이명복, 이명수, 이명숙, 이명현, 이문일, 이상수, 이상수, 이승엽, 이시영, 이언구, 이영홍, 이윤재, 이은자, 이은주, 이정규, 이정기, 이정길, 이종국, 이준성, 이지연, 이한길, 이혜리, 이호선, 임동진, 임 영, 임일택, 임지연, 장승재, 장인숙, 장태준, 전명희, 전성규, 정동성, 정상록, 정용수, 정은희, 정정수, 제양규, 조백형, 조용현, 차봉준, 차정규, 최삼열, 최성두, 최세진, 최윤영, 최진우, 최한빈, 추진연, 태영숙, 하진호, 한인관, 한정호, 한혜실, 허찬영, 허 현, 현승진, 홍선호, 홍정식, 홍준호, 홍철의, 황규영, 황세환, 황태연, 황혜정, JINSONGLIE, 1만5천 김선화, 김효순, 정상섭, 최동원, 한국잡지, 2만 강대훈, 김용식, 김인숙, 김정호, 노용환, 문대성, 문석윤, 박영혜, 박 한, 배성민, 배은경, 변우진, 손향아, 우시정, 이 건, 이대환, 이명희, 이현정, 전광학, 전중화, 조청근, 한화진, 2만2천5백 최병호, 3만 김동원, 김방룡, 김상범, 김승남, 박상진, 박신현, 서성록, 양성만, 오의석, 우병훈, 이근호, 이대희, 이은실, 임희옥, 장수영, 조우성, 최용준, 최진호, 추태화, 황의서, 황정진, 3만2천5백 김정모, 5만 김민철, 김성락, 김시호, 서진희, 송인규, 신국원, 윤석찬, 정은애, 정희영, 조성대, 채기현, 최현일, 한윤식, 현은자, 10만 김승태, 김원수, 김의원, 박상은, 손봉호, 양인평, 전광식, 최태연, 12만 김혜정, 신경훈, 이상웅, 최홍영, 30만 김승욱, 60만 양승훈

기관후원

1만 빛과소금교회, 5만 개봉교회, 대구서교회, 새언약교회, 성덕중앙교회, 중앙대학안성교회, 10만 금성교회, 남서울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다온공동체교회, 산정현교회, 상록회계법인, 새로남교회, 성덕교회, 신석교회, 열린교회, 예심교회, 자은교회, 주님의은혜교회, 참빛교회, 20만 명성교회, 서울영동교회, 수영로교회, 언약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70만 사랑의교회, 100만 엘비전

※회원 여러분들의 귀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재정내역은 매월 홈페이지(worldview.or.kr)를 통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민과 삶 속의 수많은 생각들을 풀어내는 유일한 기독교세계관 잡지 『월드뷰』.

『월드뷰』가 여러분 삶 속에 계속 할 수 있도록 함께 후원하실 분들을 기다립니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602-01-0667-971 (예금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월드뷰> 한 권이 당신에게 가기까지 3천 5백원

월드뷰 한권을 만드는 데에 3천 5백원,
커피 한잔의 값으로 한달의 풍요로움을 맛보세요.

앞으로도 월드뷰를 계속해서 출판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분들을 만나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 삶 속에 동행할 수 있도록 월드뷰는 여러분의 후원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후원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에 정회원으로 가입, CMS로 통장에서 이체신청!
2. 온라인 회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CMS 이체신청** 혹은 은행에 직접방문, 아래계좌로 **자동이체**를 신청!
3. 아니면 **사무국으로 전화**주세요. 바로 신청해드립니다!
4. 홈페이지에서 **카드 및 휴대폰 소액결제**도 가능합니다!

가입시 혜택

1. 정기후원회원 : 매월 1만원 이상
2. <신앙과 학문> 정기구독(연4회 발행),
3. 학술등재지 <신앙과 학문>투고자격
4. 월간지<월드뷰> 정기구독(연12회 발행),
5. 기부금영수증 발급(지정기부금으로 공제한도가 높음)
6. 홈페이지 각종 논문 및 칼럼 다운로드 가능
7. 홈페이지 50여편의 동영상 강좌 청취 가능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전화문의 사무국 대표전화 02) 754-8004
 이메일 info@worldview.or.kr
 후원계좌 국민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 CMS신청은 사무국으로 문의바랍니다.

2013년 임원 및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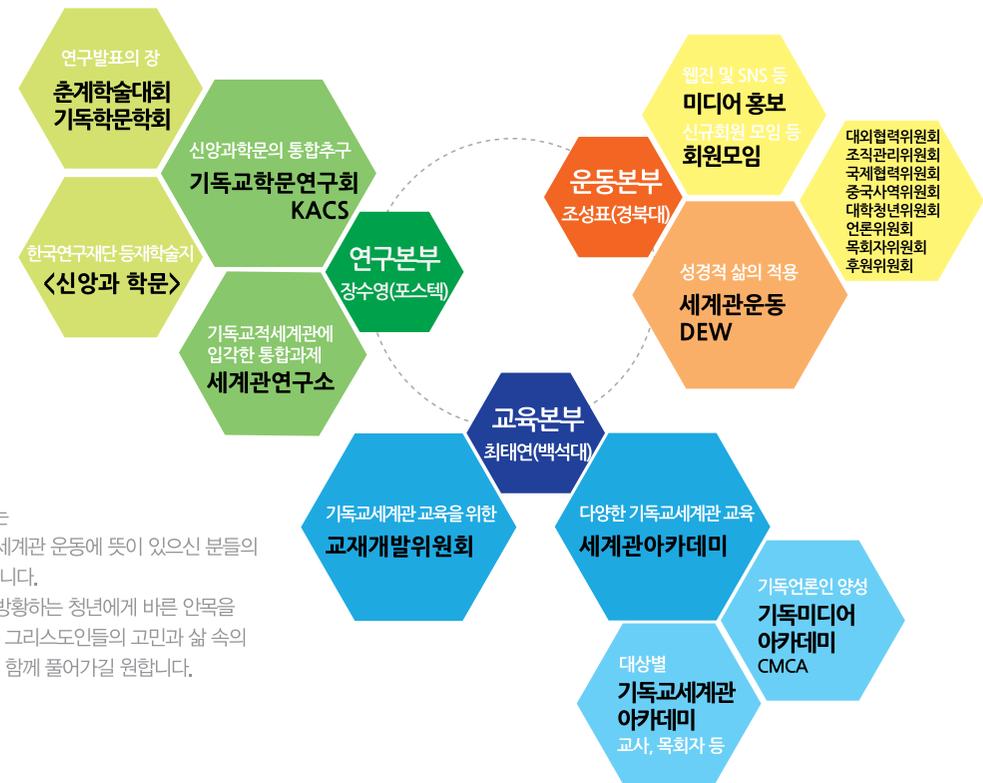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회

이사장 손봉호(고신대 석좌교수)
 부이사장 김의원(백석대 부총장), 양인평(법무법인(유)로고스 고문)
 이사 김승욱(중앙대 교수), 박상은(생병원 의료원장), 원동연(한국종합과학연구원),
 전광식(고신대 교수), 조성표(경북대 교수), 한경화(한양대 교수)
 김성수(고신대 총장), 양승훈(VIEW 원장), 오경현(사랑의 교회),
 조민제(국민일보 회장), 조정민(CGN-TV 前사장), 이인용(삼성전자 사장),
 이강인(엘비전 대표)
 감사 김원수((주)이리오스 대표), 김승태(예영커뮤니케이션 대표)

실행위원회

실행위원장 조성표(경북대 교수)
 부실행위원장 최현일(효산의과학생명연구원장)
 실행위원 최태연(백석대 교수), 김미영((주)한국소토 대표),
 김승태(예영커뮤니케이션 대표), 김승욱(중앙대 교수),
 김원수((주)이리오스 대표), 김태황(명지대 교수),
 김혜경(도서출판 CUP 대표), 신국원(충신대 교수),
 이건창(성균관대 교수), 유경상(CTC 대표), 장수영(포스텍 교수),
 정희영(충신대 교수), 최용준(한동대 교수)



사역소개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기독교적 학문연구와 기독교세계관 운동에 뜻이 있으신 분들의 동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삶 속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청년에게 바른 인목을 제시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민과 삶 속의 수많은 생각에 건강한 문화로 함께 풀어가기 바랍니다.

독립채산

세상의 지혜를 담은 컵
도서출판 CUP
 대표 김혜경 마케팅실장 윤여근

청소년, 청년 기독교세계관 교육센터
CTC
 대표 유경상 팀장 한부익, 안성희

기독교세계관 전문원간지
월드뷰 (주)세상바로보기
 대표주관 손봉호 발행인 김승욱

기독교세계관 문학책사, 다플로마 과정운영
VIEW 벤쿠버 세계관대학원
 원장 양승훈 이사 조영택, 박신일, 김명준, 김주영

사무국 본부

본부장 최현일(효산의료재단)
 대표간사 신효영 간 사 홍정석, 김고은
 지원팀
 * 회계지원 : 상록회계법인
 * 법무지원 : 법무법인(유)로고스

이상한 장례행렬

어느 날 김씨는 이상한 장례 행렬을 하나 목격했다.
 장의차 한대가 서서히 움직이고 있는데 그 뒤에 중년 남자가
 개 한 마리를 몰고 걸어 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그 나이 또래의
 남자 수십 명이 줄을 지어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너무 이상한 광경이라 호기심이 생겨서 운구차 바로 뒤에 걷는
 남자에게 가서 장례식에 웬 개를 몰고 가느냐고 물었다.

“예. 이게 나의 아내 장례식인데, 이 개가 내 아내를 물어 죽였어요.”
 그 사내가 대답했다.
 갑자기 흥분이 된 김씨,
 “혹, 그 개 내게 하루 빌려줄 수 없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 사내 왈
 “저 줄 맨 끝에 가서 따라 오세요.
 여기 줄 서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모두
 이 개 빌리려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The all-new OHAUS
EXPLORER

Introducing the most intelligent
 and intuitive balance ever to
 come from the
 mind of OHAUS



새로워진 오하우스

- 정전기 방지 코팅유리
- 플러치 패드 방식
- 적외선 감지센서 기능
- 자동 도어 방식

Specifications

Model	EX124	EX224	EX324	EX223	EX423	EX623	EX1103	EX2202	EX4202	EX6202	EX10202	EX6201	EX10201
Capacity (g)	120	220	320	220	420	620	1100	2200	4200	6200	10200	6200	10200
Readability (g)	0.0001			0.001			0.01			0.1			
Repeatability std (g)	±0.0001			±0.001			±0.01			±0.1			
Linearity (g)	±0.0002			±0.002			±0.02			±0.1			
Stabilization Time (sec)	≤2		≤3	≤1.5			≤1						
Weighing Applications	Weighing, Percent Weighing, Parts Counting, Check Weighing, Dynamic/Animal Weighing, Filling, Totalization, Formulation, Differential Weighing, Density Determination, Peak Hold, Ingredient Costing, Pipette Adjustment, SQC												

오하우스 코리아

서울 강남구 수서동 713, 현대벤처빌 1025호
 Tel. (02)2040-6388, Fax. (02)2040-6392
<http://www.ohaus.co.kr>

"생생한 동영상은 유튜브에서 찾아주세요"

YouTube www.youtube.com/ohauschannel

Facebook www.facebook.com/ohauscorp



오늘도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까?

교수님께서 들어오셔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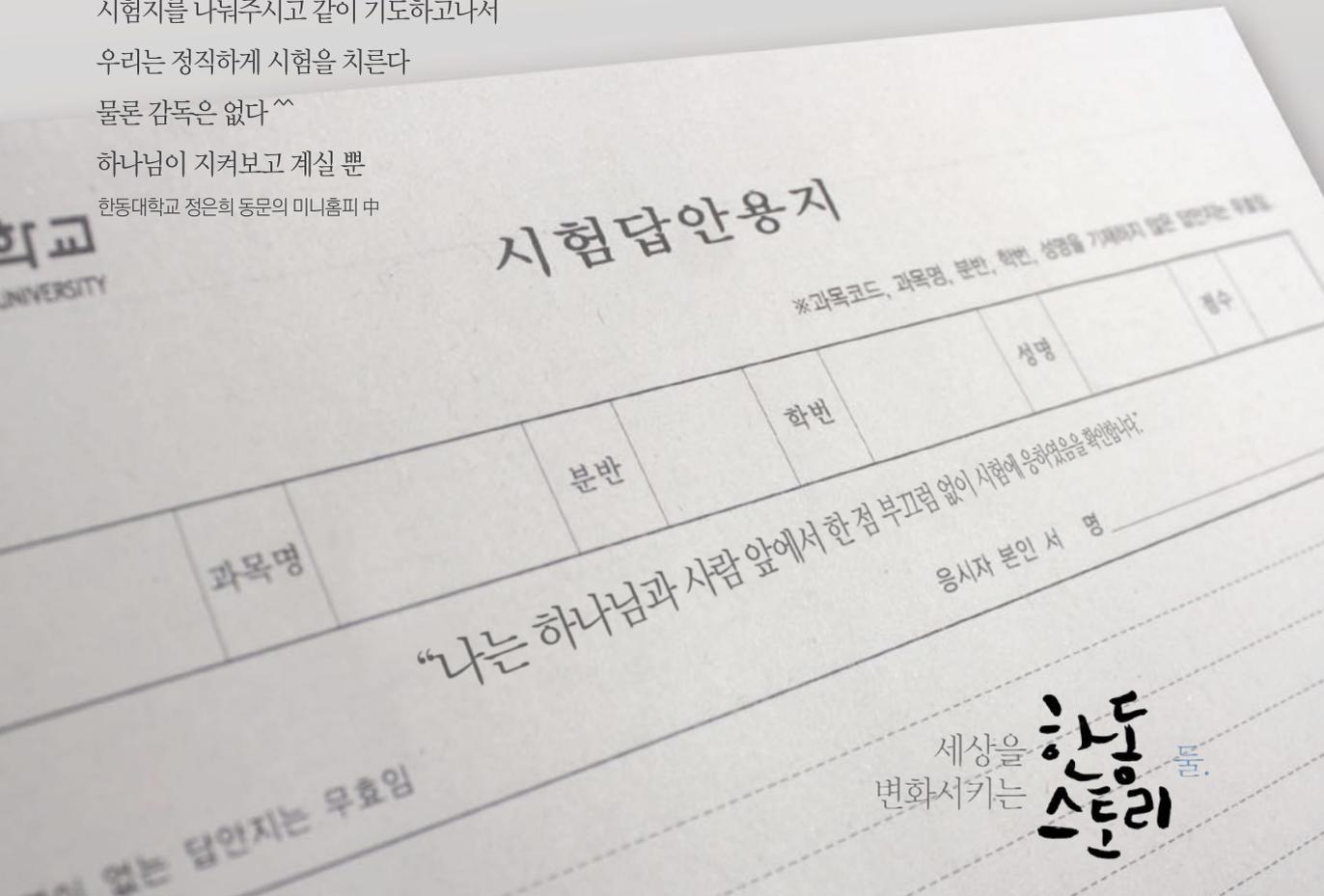
시험지를 나눠주시고 같이 기도하고나서

우리는 정직하게 시험을 치른다

물론 감독은 없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실 뿐

한동대학교 정은희 동문의 미니홈피 中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 우리는 한동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동대를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갈대상자' 참여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정기후원 신청 : 054-260-1063 / sarang@handong.edu / <http://sarang.handong.edu>

문자일시 후원 : #89491995 '갈대상자' 입력 후 발송 (1건 10,000원 후원)



- 1) 세상을 변화시키는 한동인 이야기 QR코드
- 2) www.handong.edu 확인